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자활사업의 심층적 실태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

발행 2023년 12월 발행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총정빌딩 9,10층

Contents

1.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_ 이상아
2. 2023년 자활기업 실태조사 결과_ 권소일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결과¹⁾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I. 들어가며

2022년 우리나라 기초생활 수급 가구 수는 약 169만 9천 가구이며, 수급자 수는 2,451 천 명에 달한다. 수급가구 수와 수급자 수는 17년도 이후 지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생활 수급 증가는 '15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및 선정기준이 대폭 개편의 영향으로 빈곤층의 수급기회 확대되었다고 볼수 있다. 빈곤층의 수급기회 확대는 자연스럽게 자활사업은 참여자 유입 증가와 연계 되었다. 이에 자활사업은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여건 및 인구·가구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 패러다임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으며,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교한 자활사업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자활사업의 기초자료 생산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향후 자활사업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수 있다.

이에 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의 3에 따라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참여대상 다변화, 대상별 맞춤형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이 설계 운영되기 위한 기초 조사로써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2022년부터 구축하기 시작하여 1차 조사 표본으로 2021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10%에 해당하는 5,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하였다. 본 조사는 2차년도 설문조사 결과로써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12%에 해당하는 6,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정서적 수준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정책형성에 기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이상아 외, 2022). 둘째, 2023년도 참여자의 성별, 연령, 학력, 수급유형 등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 실태(참여자 자활성과, 자활사업 만족도, 정책요구)를 파악함으로써 자활근로사업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더불어, 전국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 및 현황, 그리고 자활사업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을 파악함으로써,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의 실태를 대표하는 질 높은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표본 규모와 표본 특성을 전국 지역별 자활참여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설

1) 본 원고는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계하였다(이상아 외, 2022).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주요 실태조사 및 패널조사를 검토하여 자활사업의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현황과 자활사업 현황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조사영역을 일반특성 및 수급 특성, 자활사업 참여 특성, 경제적 상황 및 생활 실태, 주거 특성,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특성,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정서적 자활 및 웰빙, 사회적 관계, 사회서비스 이용 및 가족돌봄 현황, 자활사업 효과 및 만족도의 10개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의 조사 영역 및 문항 구성

영역	내용
일반 및 수급특성	일반 현황: 성별, 생년월일, 학력수준, 장애유무 가구 현황: 혼인상태, 동거가족 유무 및 동거인 형태 수급 현황: 현재 받고있는 급여 유형, 수급지위
자활사업 참여특성	자활 참여 현황: 자활 참여기간, 지역자활센터 소재지, 이용 중인 지역자활센터, 자활역량평가 점수, 자활사업 참여 이유 및 적극참여 방해요인, 사업단 이동 경험여부 및 빈도, 사업단 이동 사유,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 유형 및 업종 자격증 현황: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 취득 여부 및 개수, 취득 자격증 도움 정도
경제적 상황 및 생활실태	소득: 가계근로소득, 근로소득 외 자산: 총 금융자산 부채: 총 개인 부채, 개인 부채 부담 인지 정도 지출(월평균): 월평균 생활비,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1-3순위), 소비생활비 필요 생활비(주관적 최저 생계비)
주거	주거 현황: 주거 형태 및 소유형태 주거 환경: 주거 안정성(거주 가능 기간), 주거 환경
건강	신체적 건강: 신체적 능력, 주관적 건강 상태, 일상생활 도움 필요 여부 및 도움제공자, 건강 문제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의 어려움 정도 정신적 건강: 정신건강(BSI-18), 우울(PHQ-9), 삶의 만족도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건강검진 경험 여부, 의료서비스 필요시 미이용 경험 및 사유, 필요한 의료서비스 유형
일 관련 경험 및 욕구	자활사업 참여 이전 근로 경험: 근로 경험 유무, 근로 중단 시점,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수준, 근로 중단 사유 구직 경험: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 경험 유무, 구직하지 않은 이유, 마지막 구직 시기 자활사업 참여 관련 욕구: 참여 희망 업종(실제 참여 가능 업종, 조건 없을 시 희망 업종 단순 희망 업종), 원하는 자활 근로 형태(전일제/시간제) 및 이유, 원하는 주당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자활사업 종료 이후 근로 관련 욕구: 취·창업 중 희망 유형, 취·창업 시 고려사항, 탈수급 예상시기
정서적 자활 및 웰빙	정서적 자활: 자활의지(고용희망), 고용장벽, 자활행동 웰빙: 경제적 자활 정도에 대한 인지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가족지지, 사회적 자본
사회서비스 이용 및 가족돌봄 현황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사회서비스 이용경험 및 필요도 가족 돌봄 현황: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유무 및 유형, 돌봄서비스 이용 방식 및 부담 인지 정도
자활사업 만족도	근로 만족도: 자활급여, 근로내용, 근로환경, 교육, 전반적 만족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공급자 및 이용자 만족도

II. 자활사업 참여실태 주요결과

1.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본 조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특성과 자활사업 참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조사를 실시하였다. 자활참여자들의 전체 비율과 함께 각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인특성과 자활사업 참여특성으로 분류하여, 개인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력을 보았으며, 자활사업 참여특성으로는 자활사업 참여기간, 자활역량점수, 수급유형을 살펴보았다.

1) 경제적 특성

참여자들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채, 소득과 지출, 과거 일 경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부채의 경우 참여자의 54.9%가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은 40~49세, 학력은 대졸 이상이 부채가 있을 비율이 높았고 자활특성별로는 참여기간 1년 미만(43.1%), 자활역량 45점 미만과 45점 이상 59점 이하(각 44.7%), 수급유형 조건부 수급자(43.3%)가 상대적으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참여자들의 부채부담 인지 정도는 평균 7.43점(11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여성일 경우, 연령은 증가할수록, 학력은 낮아질수록, 참여기간 1년 미만,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 자활특례자일 경우 부채 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로 참여자들의 지출을 보고자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참여자의 32.9%가 100만 원~15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만 원 이상(23.1%),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19.6%)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지출항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식료품비(81.7%)가 1위를 차지하였고, 2위 주거비(52.1%), 3위 난방비(29.1%) 순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식료품비 지출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참여자들에게 큰 부담이 됨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생활 수준별 필요 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근근이 살아가는 것에는 평균 120만 원, 그럭저럭한 생활은 평균 163만 원,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평균 22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상대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25만 원의 지출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참여자의 과거 일 경험과 중단 시점에 대한 조사결과 참여자 대부분 과거 일 경험이 있었으며(74.3%), 일자리 중단 시점이 대부분 3년 이상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년 이상 된 참여자들도 2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창업을 위해서는 이러한 긴 시간적 공백을 메꾸기 위해 충분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과거 평균 소득의 경우에는 대부분 100만 원 미만~201만 원 미만이 4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은 101만원 미만(18.8%)으로 매우 적은 소득을 받았다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과거에 일을 중단한 사유는 1위는 건강상의 이유(신체적, 정신적)가 28.9%, 2위는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돌봄(11.7%), 3위는 실직(11.5%)으로 대부분 유형에서 건강상의 이유가 1순위로 참여자들의 건강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참여자 중 30~39세인 경우,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족돌봄으로 인한 일 중단이 1위(23.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19.3%)일 경우, 고졸(13.0%), 대졸(11.4%)일 경우 특히 가족돌봄으로 인한 일 중단 문제가 심각한 것이 드러났으며, 이에 30~39세에 해당하는 여성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자활을 위해서는 가족돌봄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2) 신체적, 정신적 건강 특성

자활 실태조사 참여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특성을 살펴보고자 신체적 건강은 동작의 어려움 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여부 및 제공자, 건강문제로 인한 자활참여의 어려움을 살펴보았으며, 정신건강으로는 간이 정신건강 BSI-18 척도를 활용한 신체화, 우울, 불안 점수와 PHQ-9 우울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를 활용하였다.

신체적 건강의 경우, 신체적 동작 어려움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4점 만점에서 빠르게 걷거나 달리기 3.17점으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동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건강 상태에서는 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69.4%로 참여자 대부분 건강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중 일상생활이 어려움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1.5%의 응답자들의 경우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함에도 과반수 이상(59.1%)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오롯이 가족돌봄에 의지하는 비율이 (44.4%)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신체 건강의 문제는 자활사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참여자 중 49%는 건강문제로 인하여 자활사업 참여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활 특례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참여자들의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어려움이 심각성이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함에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긴급한 관련 서비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정신건강의 경우 신체화 평균 13.67점, 우울 평균 11.95점 불안 평균 12.60점인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이 특히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우울증 진단을 위한 PHQ-9 척도 활용 결과, 우울 증상이 있는 참여자(51.4%)가 우울증상이 없는 참여자(48.6%)보다 근소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치료를 요하는 중한 증상은 7.0%, 적극적 치료를 요하는 심한 증상은 5.0%, 경한 증상은 13.0%로 확인되었다. 특히 자활특례자는 정신건강점수와 우울 점수 모두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나,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의 경우에도 5점 만점 평균 2.7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 상태에 관한 만족도가 2.12점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 개선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신체적인 건강의 어려움은 물론, 정신적 건강의 어려움에도 노출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건강 관련 서비스 및 일상생활 도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적극적 치료방안 모색과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한 급여개선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3) 주거 특성

참여자들의 주거 특성은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의 안정성과 주거환경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참여자들의 주거 안정성으로는 현재 거주지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비율이 52.4%로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당장 이주는 6.2%, 1년내에 이주는 13.3%로 나타나 주거가 불안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집의 튼튼함, 내외부 쾌적함, 안전함과 편의시설, 대중교통의 편리함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 평균 3.2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주거환경은 보통 수준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집 내부의 쾌적함(3.10점)과 주변이 쾌적함(3.08점)이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내부와 외부 쾌적함이 각 3.04점으로 각 유형 중 가장 열악한 편인 것으로 나타나 참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참여자들에게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4)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특성

참여자들의 가족 및 사회관계 특성을 살펴보고자 가족형태(동거인 여부, 가구원 수, 동거인 형태), 돌봄 특성(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 유무 및 유형, 돌봄 서비스 이용 방식 및 부담), 사회관계(가족지지, 사회적 자본) 전반에 대해 조사하였다. 첫째로, 가족형태부터 살펴보자면, 참여자들의 1인 가구 비율이 48.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남성 참여자(65.7%)가 여성 참여자(34.6%)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참여기간이 1년 미만, 자활 역량점수 45점 미만, 자활특례자일 경우에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62.7%)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성별이 여성(74.0%)인 경우, 연령이 40-49세(81.1%),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70.4%), 시설수급자(80.0%)일 때 상대적으로 자녀와 거주할 비율이 높아 이들이 자녀 돌봄으로 인하여 자활참여가 어렵지는 않은지 주의 깊게 살펴볼 면모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24.8%가 돌봄이 필요하였으며, 1위가 노인(41.4%)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위는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한 가족(22.8%)으로 나타났으나, 자녀 돌봄으로 초등학교생(13세 미만)(21.9%)과 미취학 아동(11.3%)의 응답을 종합하면, 자녀돌봄 또한 33.2%를 차지하여 자녀 돌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전적으로 본인이 돌봄을 하고 있었으며(63.5%), 이에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감 또한 6.40점(10점 만점)으로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여성 참여자들에게서 이러한 돌봄부담이 6.5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과거 일을 관둔 이유에서도 가족 돌봄이 큰 몫을 차지하였듯, 자활사업 참여에 있어서도 가족 돌봄의 부담이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가족지지를 살펴본 결과, 평균4.10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과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3.99점)' 문항의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가족과 함께 나누거나 의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성별 차이가 두드러져 여성 참여자(4.30점)에 비해 남성 참여자(3.85점)의 가족지지가 매우 취약하였고, 참여기간 1년 미만(3.98점), 시설수급자(3.86점)의 경우에도 가족 지지가 낮은 편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남성인 경우, 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인 가구일 비율 또한 매우 높았기에 이들이 동거가족이 부재한 것과 더불어 가족지지 또한 낮아 지지체계 회복을 위한 개입이 시급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자본의 경우 평균 2.70점(5점 만점)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사회참여(1.62점)가 가장 취약하였고 네트워크 수준(2.34점) 또한 낮아 주변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주변 이웃과의 교류나 도움을 받을 만한 지지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규범의식은 3.8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 또한 3.30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이는 앞으로의 사회참여 기회 및 지역사회 내의 이웃과 교류 기회를 늘릴 경우 충분히 사회적 자본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확인하였다.

5) 사회서비스 이용

참여자들의 사회서비스 이용현황과 필요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자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자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사회 서비스 이용현황(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 및 만족도, 사회서비스 유형별 이용현황 및 필요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 관리 부분에 있어서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는 참여자는 38.4%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47.9%)일 경우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짧을수록 2년 내 검진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아 건강 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참여자 중 27.5%가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을 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가장 큰 이유 1위는 비용이 부담되어서(69.1%)로 비용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활을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로는 치과 치료가 29.7%로 가장 많았으며, 만성질환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26.5%, 물리치료(관절염, 통풍 등) 25.4%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건강 외에 고용지원 사업 유형별 참여 경험은 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가 24.8%로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만족도는 3.33점(5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은 근로자 능력개발 훈련(3.37점)이며, 노인일자리가 3.1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사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일반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수급유형은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희망근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아 이들의 근로 역량을 향상시킬 훈련과 함께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는 공공근로 또한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이 자활사업 참여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용해 본 사회서비스 1위는 생계비 지원(73.6%), 2위 의료비 지원(70.6%), 3위 물품지원(52.4%)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유형에서 생계비 지원 경험률이 가장 높았지만, 참여기간 3년 초과(72.2%), 자활특례자(79.1%)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1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추가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회서비스 또한, 마찬가지로 의료비 지원(4.3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남성과 초기진입 참여자, 자활특례자를 대상으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참여자들에게 의료비용의 부담을 감소시켜줄 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원활한 자활사업 참여를 위해 고비용인 치과 진료나 만성질환 관리, 물리치료 등에 대한 의료적 지원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채워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요구는 참여자들이 뽑은 필요한 사회서비스 1위 또한 의료비 지원(4.33점, 5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참여자들이 건강 문제로 인해 기존 일자리를 중단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자활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응답자가 다수였던 결과 와도 일맥상통하여 향후 원활한 자활사업 참여를 위해 의료 관련 서비스나 의료비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자활사업 참여실태

1) 자활사업 참여 현황

자활사업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자 자활참여 이유와 사업단 이동경험, 자활 사업중 구직경험과 자격증 취득 현황을 조사하여 참여자의 자활사업 참여 현황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우선적으로 자활 참여 이유 1위는 생활비 지출이 늘어서(51.4%), 2위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30.9%), 3위는 취업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27.8%)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1위로는 자활사업 참여로 지급되는 자활수익이 적어서(63.5%), 2위 자활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23.3%), 3위 취·창업에 도움이 안 되어서(22.7%)로 나타났다.

둘째로, 참여자 사업단 이동 경험과 관련한 조사결과 사업단을 이동한 적이 있는 참여자는 28.7%였으며, 평균 이동 횟수는 1.52회로 나타났다. 사업단 이동 사유 1위는 내가 원하는 사업단으로 재배치(17.7%), 2위는 사업단의 종료(17.2%) 3위 건강이 안 좋아져서(13.8%)로 드러났다. 특히 자활기간이 길고, 자활역량 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수급유형이 자활특례자일 경우 사업단 이동 이유 1위가 사업단 종료 때문으로 전체 1위인 원하는 사업으로의 재배치보다 약 10%가량 더 높게 나타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사업단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로, 구직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 자활사업 참여 중에는 다른 일자리를 구한 경험이 없다(76.0%)고 응답하였다. 해당 사유 1위는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아서(15.6%), 2위는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14.1%), 3위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구직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서(13.7%)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가 자활사업 참여 중 마지막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한 시기 1위는 6개월 미만(31.6%)으로 대부분 비교적 최근 구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자활참여 기간이 길고 자활역량점수가 낮을수록, 수급유형은 자활특례자(33.3%)일 경우 구직 경험이 2년 이상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로, 자격증 취득 및 자격증 도움인지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자활사업 참여 중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응답은 37.1%로 나타났으며, 자격증 개수는 평균 1.93개(국가공인자격증과 민간자격증 총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활 특성별로는 참여기간이 길수록, 자활 역량점수가 높을수록 취득 자격증의 평균 개수가 증가하였다. 추가로 취득한 자격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도움 인지 정도의 경우 평균 5.88점(10점 만점)으로 자격증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6%로 나타나 자격증의 도움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수급유형 중 시설수급자가 자격증 평균 개수도 가장 많았고 도움인지 평균 점수 또한 가장 높았다.

2) 자활사업 참여 만족도

참여자의 자활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자활사업 및 사업단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자활사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자활사업 및 사업단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49점(5점 만점)으로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영역은 근로하는 작업장이 안전함(3.65점)으로 대체적으로 근로 환경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높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하위영역은 자활 급여와 관련된 만족도로 유일하게 2.46점으로 2점대를 기록하여 자활 급여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활 유형별로는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역량점수는 60점 이상일 때 만족도 평균이 높은 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전반에 대해 보고자 이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로 2가지 하위 영역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5.01점(7점 만점)으로 자활사업 서비스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 하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비스 공급자 만족도는 평균 5.22점,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4.79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각 하위 유형의 문항별 만족도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 세부 문항에서는 이곳 지원은 자신들의 일을 성의껏 함(5.53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이곳 직원은 본인 업무보다 내 요구를 먼저 들어줌(4.67점)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서비스 결과 세부 문항으로는 나는 이곳을 다시 이용하고 싶음, 내가 이곳에서 받은 도움은 기대 이상임이 각 5.1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고 이곳 직원은 내 심정을 이해하는 것 같음(4.26점)이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하고 서비스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참여 기간이 짧은 참여자들에게는 서비스 결과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으며, 상대적으로 참여 기간이 오래된 참여자들에게는 서비스 제공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접근을 통해 참여 기간별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3) 자활사업 참여 중 구직경험 및 향후 근로 욕구

참여자들의 근로 관련 요구를 파악하고자 자활사업 관련, 자활사업 종료 후 취·창업 관련으로 2가지 방향의 요구를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자활사업과 관련된 요구에 대해서는 원하는 사업단 업종과 자활 근로형태 및 시간제 근로 선택 사유를 조사하였고, 자활근로 종료 후 근로 요구는 취·창업 중 선호하는 유형과 취·창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조건을 수집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이 원하는 사업단 업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참여하고 싶은 사업단 업종, 실제로 참여 가능한 업종, 건강이나 사정의 제약이 없다면 참여하고 싶은 업종 3분야로 나누어, 모두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유형 모두 카페·베이커리 사업단이 모두 약 30% 내외 수준으로 가장 요구도가 높은 사업단 1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를 하고 싶지만 건강이나 조건등의 문제로 실제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청소의 경우 참여하고 싶은 비율보다 실제로 참여가 가능한 비율이 약 10% 가까이 높게 나타나 실제로 원하는 않지만 상황이나 조건 등으로 청소사업단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적으로 원하는 자활근로 형태 및 시간제 근로 선택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23.7%의 참여자가 시간제 일 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근로가 어려워서(4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활역량점수 80점 이상, 수급유형 조건부수급자인 경우 양육 및 돌봄의 이유로 인해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원하는 주당 근로일수는 평균 4.71일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하루 근로시간은 평균 5.37시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자활근로 종료 후 취·창업 요구에 대한 조사 결과, 자활사업 종료 후 창업(29.2%)보다 대부분 취업(70.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희망 시 고려 조건 1위는 급여수준(28.5%), 2위 근로 시간(24.2%)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희망 시 고려 조건은 1위가 장래성 및 발전 가능성(19.2%), 2위는 소득(19.1%)으로 나타났으나 3위는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 여부(14.4%)와 4위 창업 자금 마련(14.0%) 모두 금전적인 지원에 해당하기에 취·창업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결과적으로 '소득'으로 파악되었다.

4) 자활사업 참여자 정서적·경제적 자활

자활사업 참여자 정서적 자활 및 웰빙을 조사하고자 정서적 자활 수준은 자활사업 참여 전·후 참여자의 태도 변화 수준을 자활의지 변화, 고용장벽에 대한 인지변화, 자활행동 변화 수준으로 살펴보았다. 정서적 자활 조사 결과, 각 5점 만점에서 자활 의지 변화는 평균 3.60점, 고용 장벽 변화는 평균 3.20점, 자활 행동 변화는 평균 3.91점으로 정서적 자활을 측정하는 3가지 항목 모두 자활사업 참여 전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자활 행동이 사업 참여 후 가장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자 특성별로는 자활의지와 고용장벽 변화는 참여 기간이 짧고 자활역량점수가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더 높았고 반대로 자활 행동변화는 자활역량점수가 낮을수록 더 크게 변화를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구성요소의 하위 영역 중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활 의지 변화는 가치와 역량(3.69점)이, 고용 장벽 변화는 인적 자본 향상정도(3.31점)가, 자활행동변화는 근로관련행동(4.54점)이 긍정적으로 높

은 변화를 이룬 요소로 확인 되었다. 특히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근로관련행동 변화는 5점 만점에 가까운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제적 자활 정도는 3.03점(5점만점)으로 정서적 자활과 같이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가족과 개인웰빙(3.24점), 자율성과 자기결정(3.22점)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2.69점)과 재정적 안정과 책임은(2.99점) 모두 3점대 이하로 나타나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많은 개선점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III. 심층분석: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의 변화 주요결과

1. 분석방법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와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모두 응답한 응답자 978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과 정서적 자활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경제적 자활과 정서적 자활 점수의 전체 평균이 2022년 대비 2023년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 (paired-sample t-test)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후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별 경제적 자활과 정서적 자활 점수 변화율의 차이를 확인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의 성별, 연령, 자활사업 진입 당시 최종 학력, 자활사업 진입 당시 자활역량점수, 자활사업 진입 당시 수급유형, 총 자활사업 참여기간, 현재 사업단 유형, 현재 자활사업유형별로 자활효과 변화율²⁾에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2.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의 변화

1) 경제적 자활 변화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와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의 경제적 자활 점수 변화율을 확인하여 자활사업의 경제적 자활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경제적 자활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활 점수의 변화율을 확인해 본 결과, 경제적 자활 변화율은 0.02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경제적 자활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역량점수, 수급 유형, 사업 참여기간, 사업단 유형 및 참여센터 유형 등 자활사업 참여 특성별 경제적 자활 변화율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활 하위지표별로 살펴보면, 자율성과 자기결정 점수의 변화율은 0.01로 경제적인 자율성이나 자기결정 수준은 2022년에 비해 2023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율성과 자기결정 점수의 변화율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사업 참여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재정적 안정과 책임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정적 안정과 책임 점수의 변화율은 0.06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는 재정적으로 더욱 안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성별이

2) 자활효과 변화율은 (2023년 자활효과 점수-2022년 자활효과 점수)/2022년 자활효과 점수로 계산함

나 연령과 같은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역량점수 및 참여기간, 참여 사업단 유형과 같은 자활사업 참여 특성별 재정적 안정과 책임 점수의 변화율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족과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경제적 수준을 확인한 가족 및 개인웰빙 점수의 변화율은 0.06으로 다른 경제적 자활 점수들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 비해 2023년 경제적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족 및 개인웰빙 변화율은 응답자의 최종학력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무학의 경우 다른 학력 집단에서 가족 및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경제적 수준이 양호해진 것으로 확인된 것에 반하여 변화율이 -0.10으로 2022년에 비해 가족이나 개인의 복지를 위한 경제적 여유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및 개인웰빙 점수가 증가한 다른 학력 집단 중 초등학교 졸업의 변화율이 0.22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 가족 및 개인웰빙 평균 점수를 확인해보면 무학의 가족 및 개인웰빙 평균 점수는 3.09로 초등학교 졸업(3.07점) 다음으로 가족 및 개인웰빙 점수가 낮았으며 다른 학력집단과 달리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여 다른 집단과의 가족 및 개인웰빙에 대한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더욱 커진 것으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수준의 변화율은 0.07로 경제적 자활 하위지표 중 가장 큰 변화율을 보여 기본자산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사업 참여 특성에 따른 변화율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수준 변화율을 확인해 본 결과, 경제적 자활 점수 및 경제적 자활의 하위항목인 자유성과 자기결정, 재정적 안정과 책임, 가족 및 개인웰빙, 기본자산 모두 플러스 변화율을 보여 2022년 대비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 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경제적 자활 하위항목 중 가족이나 개인을 위한 복지에 대한 경제적 수준은 학력수준이 가장 낮은 무학 집단에서 다른 학력집단과 달리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여 학력수준에 따른 경제적 자활 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정성적 자활 변화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와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에 모두 응답한 응답자의 정성적 자활 점수 변화율을 확인하여 자활사업의 자활 성과를 다각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인 정성적 자활 변화율은 0.01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전반적인 정서적·직업적 역량이나 행동적인 측면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러한 정서적 자활 변화율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의 변화율은 0.02로 증가하였으나 여성은 -0.00으로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였다. 2022년 정성적 자활 점수를 비교해보면 남성이 3.69점, 여성이 3.75점으로 남성의 정성적 자활 수준이 여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활사업의 효과로 인하여 2023년에는 이러한 남녀의 정성적 자활 수준의 격차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각 정서적 자활지표의 세부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스스로의 가치와 역량에 대한 인지도나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지향, 기술과 자원 활용 등에 대한 자활의지의 변화를 확인해보면 자활의지 점수의 변화율은 0.02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 학력과 같은 일반적 특성이나 자활역량점수나 자활참여기간, 참여 사업단 유형 등 자활사업 참여 특성에 따른 자활의지 변화율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활의지의 하위항목인 가치역량의 변화율은 0.02, 미래전망동기부여의 변화율은 0.03, 기술과 자원활용의 변화율은 0.06, 목표지향의 변화율은 0.03으로 자활의지의 하위항목 모두에 대해 자활사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로관련 기술 및 인적 자원 활용 측면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근로 관련 기술 및 인적자원 활용 수준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의 기술과 자원활용 변화율은 0.10, 여성의 변화율은 0.04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기술과 자원

활용에 있어 자활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근로를 위한 인적자본이나 정보의 충분함에 대한 근로장벽 점수의 변화율은 0.08로 자활의지나 자활행동에 비해 근로장벽의 변화가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근로장벽의 변화율은 응답자의 학력과 참여센터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학력 집단에서 근로장벽 변화율이 플러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졸업(0.17)과 중학교 졸업(0.20)의 변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센터 유형별로는 도농복합형이 0.15, 농촌형 0.09, 도시형 0.06 순으로 변화율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장벽의 하위항목인 인적자본 향상의 변화율은 0.10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정보 향상의 변화율은 0.11로 인적자본과 고용정보 향상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인적자본 향상의 경우 학력 집단별로 변화율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교적 고학력 집단인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교 졸업 이상 집단보다 저학력 집단인 무학(0.10), 초등학교 졸업(0.20), 중학교 졸업(0.21)의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저학력 집단에서 고학력 집단에 비해 인적자본 향상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정보향상의 변화율은 응답자의 학력과 사업단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고용정보향상 변화율은 중학교 졸업이 0.26, 초등학교 졸업 0.19로 비교적 저학력 집단에서 고용정보향상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장 학력이 낮은 집단인 무학에서는 변화율이 0.00으로 확인되어 자활사업의 고용정보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단 유형별로는 사회서비스형의 변화율이 0.16으로 다른 사업단 유형에 비해 고용정보 향상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게이트웨이의 고용정보 향상 변화율은 -0.12로 마이너스 변화율을 보여 게이트웨이 참여자의 고용정보 향상을 위한 노력이 특히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반적이 자활행동의 변화율은 0.01로 자활행동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자활행동의 하위항목 중 근로관련행동의 변화율은 0.01로 확인되었으며 일상생활 행동 변화율은 0.00, 사회적 관계 행동 변화율은 0.02, 청결외모의 변화율 0.02, 건강관리행동의 변화율은 0.04로 확인되어 특히 일상생활 행동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의 효과성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계 행동 변화율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여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참여기간이 짧을수록 사회적 관계 행동의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단 동료나 실무자와의 관계가 새로 형성되기 때문에 자활사업 진입 초기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활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관리 행동 변화율의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9세 이하와 30대 참여자의 건강관리 행동 변화율이 각각 0.08, 0.0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변화율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변화율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장년층과 노인층의 경우에는 기존에 건강관리 수준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변화율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년층인 29세 이하와 30대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건강관리 수준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IV.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 자활사업 내 참여자 유형 발굴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본 조사에 따르면, 참여기간과 자활역량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의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자립 장애요인)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조사결과 도출된 자활사업 참여자 특징

참여기간/ 자활역량	단기(1년이내)	장기(3년초과)
역량 낮음(59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가구 생활비 적음 - 가족지지 적음 - 주관적 건강상태 어려움 -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 - 주거 문제 요구 - 의료서비스 경험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가구 생활비 적음 - 1인가구 비중 높음 - 장기 실업 경험(8년이상) - 우울, 불안 정도 높음
역량 높음(60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 문제 존재 - 부채에 대한 부담 높음 - 고강도 노동에 대한 두려움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 경험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만족도 높음 - 사회적 자본 축적 - 돌봄이 필요한 가족 존재 - 사업단 이동 높음 - 사회서비스(경제적 지원) 이용 경험 많음

역량이 낮고, 단기 참여자의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재 진단과 만성 질환을 치료할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활능력 향상이 요구되며 일상생활 지원 역시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역량이 낮고, 장기참여자의 경우 우울, 불안 정도가 높은 점, 1인가구 비중이 높고, 장기 실업기간의 경험이 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연계와 자활의지(자존감, 동기)등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사업단으로의 배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역량이 높고, 단기참여자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 금융 복지 서비스 연계가 요구된다.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창업을 시도했으나 어려움이 있었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보다 취·창업 목표를 설정하고 부족한 학력, 자격 등을 보완하는 직무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역량이 높고, 장기 참여자의 경우 취·창업 목표를 더욱 분명히 하고, 취·창업을 장애요인이 되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 연계와 적극적인 고용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2. 참여자 대상 대인·사회관계 강화 프로그램 요구

본 조사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참여자들과의 관계 문제(자활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가 23.3%로 나타난 점,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사회적 자본의 경우 평균

2.70점(5점 만점)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사회참여(1.62점)가 가장 취약하였고 네트워크 수준(2.34점) 또한 낮아 주변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주변 이웃과의 교류나 도움을 받을 만한 지지체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이웃관계가 적은 상태에서 자활 참여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 특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형태의 자활사업 구조상 자활사업의 구조상 “사업단” 조직 안에서 관계의 다이내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자들의 자활사업 참여 동기를 강화시키고, 사업단 구조 내에서 참여자들의 자립유인 강화, 역량 증대를 위한 대인·사회관계 강화 프로그램 등이 단순히 사례관리 영역에서만 아닌 사업단 공동교육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3. 자활사업의 정책적 목표 다변화에 따른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편

'23년 10월에 발표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활사업에서 “탈수급”이라는 결과적·정량적 평가 지표외에도 개인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그동안 자활사업이 결과적 성과에 중점을 맞춰있던 것에서 나아가 자활사업 참여 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자활의지, 근로 장벽, 자활행동 등 정서적 효과에도 주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본 조사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변화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22년도 실태조사와 23년도 실태조사의 중복 참여대상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22년도와 23년도의 동일한 대상에 대한 년도 평균 비교 결과, 경제적 자활은 23년도에 22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적 자활에 있어서는 자활행동에서 청결유지, 건강관리행동이 23년도에 22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장벽인지에서 인적자본향상 정도가 23년도에 22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의 자립 장애요인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의 개선이 자활사업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참여자 개인이 자립을 위해 필요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보나 교육 등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과정적 성과로써 자활 의지(가치와 역량, 미래전망동기부여, 목표지향)은 23년도에 22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자활사업은 사업단의 창업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에 자활사업은 게이트 웨이, 시간제 사업단, 청년자립도전단 등 다양화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활사업이 변화되는 정책적 목표에 맞춰 세부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표 3〉 경제적 자활 22년도 평균 대비 23년도 평균의 증감

	2022년도 경제적 자활	2023년도 경제적 자활	증감	T-value
경제적 자활	3.11(0.83)	3.05(0.82)	-0.06	2.57*
자율성과 자기결정	3.33(0.86)	3.23(0.86)	-0.10	3.56***
재정적 안정과 책임	3.07(1.02)	3.01(1.00)	-0.06	1.76
가족과 개인웰빙	3.31(1.00)	3.27(0.99)	-0.04	1.34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자산	2.75(0.91)	2.71(0.88)	-0.04	1.21

〈표 4〉 정서적 자활 22년도 평균 대비 23년도 평균의 증감

	2022년도 정서적 자활	2023년도 정서적 자활	증감	T-value
정서적 자활(전체)	3.73(0.58)	3.71(0.57)	-0.02	0.75
자활의지	3.65(0.79)	3.62(0.80)	-0.03	1.18
가치와 역량	3.69(0.82)	3.66(0.83)	-0.03	1.21
미래전망동기부여	3.67(0.92)	3.63(0.93)	-0.04	1.47
기술과 자원활용	3.58(0.93)	3.59(0.93)	0.01	-0.51
목표지향	3.67(0.94)	3.60(0.93)	-0.07	2.27*
자활행동	3.99(0.50)	3.98(0.50)	-0.01	0.53
근로관련행동	4.60(0.58)	4.57(0.63)	-0.03	1.44
일상생활	3.29(0.55)	3.28(0.51)	-0.01	0.42
사회적관계행동	3.97(0.76)	3.93(0.74)	-0.04	1.65
청결유지	4.02(0.75)	4.03(0.75)	0.01	-0.51
건강관리 행동	3.85(0.83)	3.88(0.82)	0.03	-1.52
고용장벽인지 완화	3.23(0.92)	3.24(0.86)	0.01	-0.49
인적자본향상정도	3.32(1.02)	3.37(0.98)	0.05	-1.27
고용정보향상정도	3.13(1.00)	3.12(0.95)	-0.01	0.37

4)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 정책 실태조사 필요

22년, 23년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를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자들의 특성과 자활사업에 대한 욕구, 자활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도록 기반이 구축되었다. 이제는 자활사업의 세부 개편을 통해 자활사업의 질적 향상 및 고도화가 요구된다. 특히, 경제 침체 등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바탕으로 앞으로 자활사업이 나아갈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데이터 축적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양적 확장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이상아·최상미·오성은·고은새·양가람·김수완. 2022. 2022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최상미. 2017. 정서적 자활 성과 지표 도입 연구: 한국형 고용 희망 척도(Korean Employment Hope Scale: K-EHS) 개발과 타당도 검증. 사회복지연구, 48(2), 97-119.

2023년 자활기업 실태조사 결과³⁾

권소일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자활기업(자활공동체)의 근거와 역할을 마련한 이후 자활기업은 지난 20년 간 수급자, 차상위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수급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매개체이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왔다. 저소득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창업하여, 일하는 공동체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는 높이 평가받고 있다(김정원, 2018; 김재호, 2020; 조준용 외, 2022).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정의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기업으로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15,000여명의 수급자, 차상위자, 취약계층이 자활기업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1,000여개의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2년 대비 24.5% 감소한 수치이며,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 수 역시 감소하고 있어 그 원인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21년 기준 창업수 76개로 최저치 기록).

이처럼 자활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등을 계기로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 영역안에 포함시키며 위협은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들어 자활기업의 영세한 조직규모와 인적자본의 취약성이 두드러졌으며, 자활기업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한 판로 확보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이에서의 정체성 모호성 등은 자활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다양한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활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활기업에 대한 통합적 진단이 필요하다. 자활기업 관련 기초자료의 지속적인 생산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장기적 전략 마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활기업 대한 심층적이고, 전국 단위에서의 자활기업의 자료수집과 연구가 부족했다. 자활기업 현재 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자활기업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현 지형을 이해하고, 정확한 확인을 통해 향후 자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3) 본 원고는 '2023년 자활기업 및 종사자 실태조사'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의 실태를 대표하는 질 높은 경향성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활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자가 응답하여 기업 상황을 파악하고 자활기업 활성화 정책형성 방안에 대한 실태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자활기업을 전수로 조사함에 따라 자활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자활기업의 영향(impact)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활기업 사업보고서를 입력한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초자료를 토대로 종단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문항

자활기업 실태조사를 위해 총 6가지 영역의 42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6개 영역은 자활기업 기본정보, 운영현황, 자활기업 네트워크 및 협력, 조직성과, 정책방향, 법인전환이슈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표 5〉 조사문항

조사영역	조사내용
기본정보(11문항)	소재지*, 구성원(대표, 임원, 직원)*, 월급을 받는 구성원*, 그 중 취약계층*, 자활기업 설립일*, 사업장 점유형태*, 임차형태*, 자금조달 방법*, 자금 주요용도*, 자금 액수*, 자금조달시 어려움점
운영현황(6문항)	기업 생애주기*, 운영과정에서 힘든점, 판로 종류*, 판매비율*, 홍보 방법*, 홍보 미실시 이유
자활기업 네트워크 및 협력(5문항)	타조직과 협력사업 수행경험*, 연계정도*, 협력하지 않은 이유, 협업체 가입여부*, 가입협업체 이름, 네트워크 활동이유*,
조직성과(4문항)	사회적가치 실천정도*, 중요 사회적가치*, 경제적성과 변화*, 사회적성과 변화*
정책방향(9문항)	최근 지원받은 제도*, 도움정도*, 필요한 지원정책*, 지역자활센터 지원여부, 광역자활센터 지원여부, 개발원 지원여부, 만족도, 미지원 이유, 불만족 이유
법인전환(7문항)	향후 1년뒤 계획, 개인사업자 여부, 전환고려 여부, 법인 미고려 이유, 법인 전환시 필요정책, 법인 설립 이유, 법인운영 고충

주 : 본 발표문에는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해당 문항에 *표시 함.

2. 조사 설계

조사대상은 2023년 4월 기준 자활기업 사업보고를 마친 자활기업 938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한다. 설문은 자활기업 대표자 혹은 자활기업을 잘 아는 임원이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한 기업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하였다. 조사는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2달간 진행되었으며, 624개소가 응답하여 회수율 66.5%를 보였다.

〈표 6〉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자활기업 대표자(대표자 및 임원)
표본 수	자활기업 938개소
표본 설계	전수조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조사
조사기간	2023년 9월 ~ 2023년 11월
회수율	624개소(66.5%)

III. 연구결과

1. 자활기업 기본 현황

자활기업의 기본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구성원 현황, 인건비를 받는 구성원 현황, 사업장 점유 형태 등을 알아보았다.

1) 자활기업의 일반적 특성

2023년 자활기업 실태조사에 응답한 전국의 624개 자활기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기업의 규모는 3-5인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41.0%로 가장 많았으며, 2016년-2020년 사이에 29.5%가 자활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가 56.7%로 개인사업자(43.3%)보다 많으며, 업종은 집수리(21.6%), 세탁·청소(19.4%), 생산·가공(17.5%), 배송·운전(15.4%) 순으로 나타났다. 자활기업이 운영되고 있는 소재지는 경기지역(14.6%)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13.9%)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전북(8.8%)과 경남(8.8%)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자활기업 일반적 특성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비율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624	100.0	전체	624	100.0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26.3	업종	생산·가공	109	17.5
	3인-5인 미만	256	41.0		집수리	135	21.6
	5인-10인 미만	163	26.1		세탁·청소	121	19.4
	10인-15인 미만	18	2.9		배송·운전	96	15.4
	15인-30인 미만	13	2.1		음식점	68	10.9
	30인 이상	10	1.6		유통·판매	48	7.7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20.8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32	5.1
	2010년-2015년	175	28.0		재활용·환경	8	1.3
	2016년-2020년	184	29.5		기타	7	1.1
	2020년 후	135	21.6	사업자	개인	270	43.3
소재지	서울	87	13.9	법인	354	56.7	
	부산	46	7.4	강원	31	5.0	
	대구	24	3.8	충북	20	3.2	
	인천	35	5.6	충남(세종)	39	6.3	
	광주	18	2.9	전북	55	8.8	
	대전	15	2.4	전남	45	7.2	
	울산	14	2.2	경북	31	5.0	
	경기	91	14.6	경남	55	8.8	
			제주	18	2.9		

2) 자활기업 구성원

(1) 총인원

자활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은 평균 11.5명으로 대표, 이사, 직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수급자 구성원은 3.7명, 비수급자 구성원은 7.8명이다. 대표(최고관리자)를 맡고 있는 수급자는 평균 1.0명, 이사는 0.7명이며, 직원은 2.0명으로 나타났으며, 비수급자 중에서는 대표 0.7명, 이사 0.8명, 직원 6.3명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환경 업종에서 수급자 임원(대표, 이사)이 평균 2.4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회서비스 업종에서 비수급자 임원(대표, 이사)이 4.4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직원이 평균 78.1명으로 타 업종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자활기업 구성원(평균)

(단위: 개, 명)

	구분	사례수	총인원	수급자·차상위			비수급자		
				대표	이사	직원	대표	이사	직원
	전체	624	11.5	1.0	0.7	2.0	0.7	0.8	6.3
인증시기	2010년 전	130	22.0	0.7	0.9	2.0	1.1	1.4	16.1
	2010년-2015년	175	13.5	0.8	0.6	2.5	0.8	1.1	7.7
	2016년-2020년	184	7.3	1.1	0.6	2.1	0.6	0.6	2.4
	2020년 후	135	4.4	1.3	0.9	1.3	0.2	0.3	0.4
사업자	개인	270	3.6	1.2	0.2	0.9	0.6	0.1	0.6
	법인	354	17.5	0.8	1.1	2.9	0.7	1.4	10.7
업종	생산·가공	109	10.4	1.1	0.6	2.8	0.7	0.7	4.5
	집수리	135	5.9	0.6	0.7	1.1	0.8	0.9	1.6
	세탁·청소	121	9.0	1.0	0.6	1.7	0.6	0.8	4.4
	배송·운전	96	5.4	0.9	0.8	1.0	0.5	0.7	1.5
	음식점	68	3.7	1.3	0.5	0.7	0.4	0.3	0.4
	유통·판매	48	5.3	1.3	0.8	1.8	0.4	0.5	0.6
	사회서비스	32	96.4	0.8	1.4	11.6	1.4	3.0	78.1
	재활용·환경	8	2.9	1.1	1.3	0.4	0.1	0.0	0.0
	기타	7	3.4	0.7	0.1	1.3	0.4	0.7	0.1
소재지	서울	87	12.6	1.2	0.9	1.1	0.5	0.9	8.1
	부산	46	12.2	1.1	0.4	1.6	0.5	0.4	8.2
	대구	24	8.8	1.4	0.6	1.1	0.5	0.8	4.3
	인천	35	20.0	0.5	0.7	2.5	0.9	1.2	14.2
	광주	18	5.3	1.1	0.8	0.9	0.7	0.8	1.0
	대전	15	6.1	0.9	0.7	1.7	0.5	0.3	2.0
	울산	14	6.3	1.1	0.5	1.2	0.6	0.6	2.3
	경기	91	16.6	0.9	0.9	4.2	0.6	0.9	9.0
	강원	31	14.7	0.7	0.5	0.9	0.7	1.2	10.7
	충북	20	24.6	1.4	0.9	2.1	1.3	1.3	17.7
	충남(세종)	39	15.9	0.9	0.8	5.9	0.7	1.0	6.6
	전북	55	6.6	1.1	0.5	1.3	0.7	0.6	2.6
	전남	45	5.7	0.6	0.5	1.1	0.9	0.7	2.0
	경북	31	4.3	1.0	0.6	0.7	0.6	0.5	1.0
	경남	55	6.0	0.8	0.9	0.8	0.7	1.0	1.8
제주	18	9.7	1.1	0.9	3.0	0.6	1.4	2.7	

(2) 급여를 받고 있는 구성원

현재 자활기업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는 구성원은 평균 10.8명이며 그 중 취약계층은 5.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당시 급여를 받는 사람이 평균 5.2명에서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2010년 전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증받아 운영하는 곳에서 평균 21.0명이 급여를 받고 있으며, 법인사업자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16.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창업당시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현재 급여를 받는 인원이 감소한 업종은 재활용·환경으로, 4.3명에서 2.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급여를 받는 구성원(평균)

(단위 : 개, 명)

	구분	사례수	창업시 급여수령인	현재 급여수령인		
				취약계층	취약계층	
	전체	624	5.2	4.0	10.8	5.6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6.9	5.0	21.0	13.2
	2010년-2015년	175	4.4	3.5	12.8	3.6
	2016년-2020년	184	5.9	4.3	6.7	3.8
	2020년 후	135	3.6	3.3	4.0	3.3
사업자	개인	270	3.3	2.8	3.0	2.1
	법인	354	6.7	4.9	16.8	8.3
업종	생산·가공	109	8.7	5.8	9.6	5.5
	집수리	135	3.7	2.8	5.1	2.6
	세탁·청소	121	4.7	4.0	8.3	5.7
	배송·운전	96	3.7	3.4	4.9	2.7
	음식점	68	2.8	2.6	3.2	2.5
	유통·판매	48	3.9	3.5	4.9	3.4
	사회서비스	32	13.8	8.9	95.1	38.3
	재활용·환경	8	4.3	4.0	2.4	2.3
	기타	7	2.4	2.1	2.9	1.7
소재지	서울	87	3.6	3.2	12.0	4.6
	부산	46	4.8	3.8	11.6	8.0
	대구	24	4.0	3.5	7.5	4.0
	인천	35	6.7	5.1	19.5	9.5
	광주	18	4.0	3.4	4.7	2.6
	대전	15	6.3	5.3	5.8	3.3
	울산	14	3.6	3.3	5.5	3.4
	경기	91	5.5	4.4	16.0	7.4
	강원	31	4.7	3.9	14.1	9.3
	충북	20	4.2	3.4	22.7	15.4
충남(세종)	39	14.8	8.1	15.0	8.2	

	구분	사례수	창업시 급여수령인	현재		
				취약계층	급여수령인	취약계층
	전북	55	5.0	3.6	5.9	2.3
	전남	45	4.1	3.5	5.2	2.8
	경북	31	2.7	2.1	3.7	1.8
	경남	55	4.0	3.6	5.3	2.8
	제주	18	4.8	3.9	8.8	5.3

3) 자활기업 사업장 점유형태

(1) 점유형태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점유형태는 91.8%가 임차로 나타났다. 임차로 응답한 기업 중 69.6%는 보증금 있는 월세를 지불하고 있다. 30인 이상의 자활기업 20%는 사업장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이전에 인증받은 오랜기간 운영한 16.9%는 사업장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차의 경우 개인사업자(68.8%)나 법인사업자(70.3%) 모두 보증금이 있으면서 월세를 지불하고 있으며, 배송·운전 업종의 경우 무상임차인 경우가 20.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 사업장 점유형태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소유	임차	임차				
					보증금有 월세	보증금無 월세	전세	무상 임차	기타
	전체	624	8.2	91.8	69.6	11.2	4.7	9.9	4.5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3.7	96.3	72.2	10.8	2.5	11.4	3.2
	3인-5인 미만	256	8.2	91.8	69.8	11.1	4.7	8.5	6.0
	5인-10인 미만	163	11.0	89.0	67.6	11.7	6.9	9.7	4.1
	10인-15인 미만	18	11.1	88.9	62.5	12.5	0.0	18.8	6.3
	15인-30인 미만	13	15.4	84.6	72.7	18.2	0.0	9.1	0.0
	30인 이상	10	20.0	80.0	62.5	0.0	25.0	12.5	0.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16.9	83.1	68.5	9.3	11.1	8.3	2.8
	2010년-2015년	175	9.7	90.3	74.7	8.9	3.8	7.6	5.1
	2016년-2020년	184	4.3	95.7	69.9	10.2	3.4	12.5	4.0
	2020년 후	135	3.0	97.0	64.1	16.8	2.3	10.7	6.1
사업자	개인	270	6.3	93.7	68.8	12.3	3.2	10.7	5.1
	법인	354	9.6	90.4	70.3	10.3	5.9	9.4	4.1
업종	생산·가공	109	8.3	91.7	65.0	13.0	7.0	8.0	7.0
	집수리	135	12.6	87.4	71.2	11.0	6.8	8.5	2.5
	세탁·청소	121	9.1	90.9	76.4	7.3	5.5	9.1	1.8

	구분	사례수	소유	임차					
					보증금有 월세	보증금無 월세	전세	무상 임차	기타
	배송·운전	96	4.2	95.8	62.0	12.0	1.1	20.7	4.3
	음식점	68	4.4	95.6	70.8	13.8	1.5	7.7	6.2
	유통·판매	48	0.0	100.0	72.9	10.4	2.1	2.1	12.5
	사회서비스	32	21.9	78.1	64.0	8.0	12.0	16.0	0.0
	재활용·환경	8	0.0	100.0	87.5	12.5	0.0	0.0	0.0
	기타	7	0.0	100.0	71.4	28.6	0.0	0.0	0.0
	소재지	서울	87	4.6	95.4	79.5	6.0	6.0	6.0
부산	46	2.2	97.8	82.2	8.9	2.2	0.0	6.7	
대구	24	4.2	95.8	100.0	0.0	0.0	0.0	0.0	
인천	35	11.4	88.6	74.2	9.7	6.5	0.0	9.7	
광주	18	5.6	94.4	82.4	5.9	0.0	5.9	5.9	
대전	15	6.7	93.3	71.4	0.0	14.3	14.3	0.0	
울산	14	0.0	100.0	71.4	14.3	7.1	7.1	0.0	
경기	91	6.6	93.4	78.8	3.5	2.4	11.8	3.5	
강원	31	9.7	90.3	67.9	7.1	3.6	17.9	3.6	
충북	20	15.0	85.0	64.7	23.5	5.9	5.9	0.0	
충남(세종)	39	15.4	84.6	63.6	18.2	9.1	6.1	3.0	
전북	55	12.7	87.3	62.5	20.8	6.3	4.2	6.3	
전남	45	15.6	84.4	36.8	18.4	2.6	39.5	2.6	
경북	31	12.9	87.1	66.7	11.1	11.1	11.1	0.0	
경남	55	3.6	96.4	60.4	20.8	1.9	15.1	1.9	
제주	18	5.6	94.4	23.5	17.6	5.9	11.8	41.2	

(2) 임대료 수준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 수준은 보증금 평균 2,976만원, 월세 평균 88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더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있었으며, 법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3,327만원)과 월세(94만원)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주시의 경우 보증금 5,013만원, 월세 180만원으로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보증금과 월세

(단위 : 개, 만원, %)

	구분	사례수	보증금						월세				
			평균	1천만	1-2천만	2-3천만	3-5천만	5천이상	평균	30만	30-50만	50-100만	100만 이상
	전체	399	2,976	23.8	22.1	18.8	15.5	19.8	88	11.8	20.6	38.6	29.1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14	2,455	26.3	22.8	17.5	14.9	18.4	76	12.3	25.4	38.6	23.7
	3인-5인 미만	164	2,881	23.8	22.6	21.3	17.7	14.6	88	12.8	18.3	37.8	31.1
	5인-10인 미만	98	2,931	20.4	23.5	18.4	14.3	23.5	92	7.1	20.4	43.9	28.6
	10인-15인 미만	10	4,070	30.0	10.0	10.0	10.0	40.0	90	30.0	10.0	20.0	40.0
	15인-30인 미만	8	5,538	25.0	0.0	12.5	12.5	50.0	83	12.5	25.0	25.0	37.5
	30인 이상	5	12,546	20.0	20.0	0.0	0.0	60.0	268	20.0	0.0	20.0	60.0
인증 시기	2010년 전	74	3,090	20.3	28.4	20.3	10.8	20.3	73	10.8	24.3	41.9	23.0
	2010년-2015년	118	2,959	32.2	18.6	17.8	8.5	22.9	80	15.3	24.6	39.8	20.3
	2016년-2020년	123	2,751	23.6	19.5	17.9	23.6	15.4	82	14.6	20.3	39.0	26.0
	2020년 후	84	3,230	15.5	25.0	20.2	17.9	21.4	120	3.6	11.9	33.3	51.2
사업자	개인	174	2,522	24.7	25.9	18.4	17.2	13.8	79	12.6	22.4	36.8	28.2
	법인	225	3,327	23.1	19.1	19.1	14.2	24.4	94	11.1	19.1	40.0	29.8
업종	생산·가공	65	2,954	15.4	29.2	15.4	21.5	18.5	96	13.8	20.0	30.8	35.4
	집수리	84	2,330	32.1	25.0	14.3	10.7	17.9	63	10.7	28.6	45.2	15.5
	세탁·청소	84	2,323	27.4	26.2	20.2	10.7	15.5	55	16.7	21.4	57.1	4.8
	배송·운전	57	1,751	38.6	17.5	21.1	14.0	8.8	91	14.0	28.1	24.6	33.3
	음식점	46	4,174	4.3	17.4	23.9	30.4	23.9	126	2.2	13.0	23.9	60.9
	유통·판매	35	4,683	8.6	14.3	28.6	17.1	31.4	141	2.9	8.6	31.4	57.1
	사회서비스	16	6,833	25.0	18.8	12.5	0.0	43.8	135	12.5	6.3	37.5	43.8
	재활용·환경	7	4,007	14.3	0.0	14.3	28.6	42.9	72	14.3	0.0	71.4	14.3
	기타	5	2,280	60.0	0.0	0.0	0.0	40.0	47	40.0	20.0	20.0	20.0
소재지	서울	66	3,911	10.6	25.8	24.2	16.7	22.7	110	6.1	10.6	43.9	39.4
	부산	37	3,116	16.2	24.3	10.8	27.0	21.6	100	8.1	13.5	32.4	45.9
	대구	23	2,649	17.4	17.4	26.1	8.7	30.4	81	13.0	13.0	39.1	34.8
	인천	23	3,617	34.8	17.4	4.3	13.0	30.4	83	17.4	17.4	47.8	17.4
	광주	14	2,293	21.4	28.6	14.3	7.1	28.6	70	7.1	35.7	42.9	14.3
	대전	10	3,650	10.0	30.0	10.0	20.0	30.0	99	10.0	20.0	40.0	30.0
	울산	10	2,450	10.0	10.0	30.0	40.0	10.0	124	0.0	0.0	50.0	50.0
	경기	67	3,201	17.9	16.4	23.9	19.4	22.4	113	9.0	11.9	35.8	43.3
	강원	19	1,753	31.6	42.1	10.5	0.0	15.8	63	0.0	47.4	36.8	15.8
	충북	11	1,891	18.2	27.3	27.3	18.2	9.1	50	18.2	36.4	36.4	9.1
	충남(세종)	21	2,810	23.8	28.6	19.0	14.3	14.3	78	4.8	23.8	57.1	14.3

	구분	사례수	보증금						월세				
			평균	1천만	1-2천만	2-3천만	3-5천만	5천이상	평균	30만	30-50만	50-100만	100만 이상
	전북	30	3,707	40.0	13.3	20.0	6.7	20.0	51	26.7	30.0	36.7	6.7
	전남	14	1,005	57.1	21.4	7.1	14.3	0.0	56	14.3	28.6	42.9	14.3
	경북	18	1,061	66.7	11.1	11.1	5.6	5.6	54	22.2	44.4	16.7	16.7
	경남	32	2,648	21.9	25.0	25.0	15.6	12.5	65	25.0	28.1	31.3	15.6
	제주	4	5,013	25.0	25.0	0.0	25.0	25.0	180	0.0	0.0	25.0	75.0

2. 자활기업 운영 현황

자활기업의 운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자가 생각하는 기업의 생애주기, 판로 현황, 홍보 및 마케팅 방안, 자금조달 방식, 운영시 어려운 점 등을 조사하였다.

1) 자활기업의 운영 생애주기

자활기업의 운영 성과 측면에서 어느 생애주기에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5.1%가 성장단계, 25.8%가 생존단계, 16.2%가 성숙단계, 14.1%가 위기단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기 인증기업(2010년 이전)들은 33.1%가 성숙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용·환경 업종의 기업이 위기단계(25.0%)라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작단계는 조직 운영 시작, 시장진입을 위한 노력에 많은 에너지 투입이 들어가는 시기, 생존단계는 사업계획 및 전략수정, 시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적응(변화)요구되는 시기, 성장단계는 운영시스템 정착, 성장에 따른 효율성 증가, 시장·상품·서비스 확장 도전하는 시기, 성숙단계는 이익 창출 모델사업 정립, 지속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투자 요구시기, 위기단계는 운영 지속 어려움으로 업종 전환 등 압박감 증가, 휴업 나아가 폐업 고려시기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표 12〉 운영 성과적 생애주기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시작단계	생존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위기단계
	전체	624	8.8	25.8	35.1	16.2	14.1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10.4	34.1	28.7	14.6	12.2
	3인-5인 미만	256	8.2	24.6	39.5	14.8	12.9
	5인-10인 미만	163	8.6	21.5	35.6	17.2	17.2
	10인-15인 미만	18	5.6	22.2	33.3	22.2	16.7
	15인-30인 미만	13	7.7	15.4	30.8	30.8	15.4
	30인 이상	10	10.0	10.0	30.0	30.0	20.0

	구분	사례수	시작단계	생존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위기단계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3.1	13.1	35.4	33.1	15.4
	2010년-2015년	175	0.6	24.0	39.4	21.1	14.9
	2016년-2020년	184	6.5	29.3	37.0	8.2	19.0
	2020년 후	135	28.1	35.6	26.7	4.4	5.2
사업자	개인	270	8.1	31.1	32.6	10.7	17.4
	법인	354	9.3	21.8	37.0	20.3	11.6
업종	생산·가공	109	6.4	26.6	31.2	16.5	19.3
	집수리	135	8.9	24.4	34.1	24.4	8.1
	세탁·청소	121	12.4	28.9	31.4	11.6	15.7
	배송·운전	96	5.2	26.0	43.8	13.5	11.5
	음식점	68	11.8	23.5	41.2	13.2	10.3
	유통·판매	48	10.4	31.3	29.2	8.3	20.8
	사회서비스	32	6.3	9.4	40.6	25.0	18.8
	재활용·환경	8	12.5	25.0	25.0	12.5	25.0
소재지	기타	7	0.0	42.9	28.6	14.3	14.3
	서울	87	14.9	21.8	31.0	14.9	17.2
	부산	46	4.3	28.3	37.0	8.7	21.7
	대구	24	12.5	29.2	33.3	16.7	8.3
	인천	35	8.6	28.6	34.3	22.9	5.7
	광주	18	5.6	22.2	61.1	5.6	5.6
	대전	15	6.7	26.7	33.3	26.7	6.7
	울산	14	14.3	7.1	28.6	14.3	35.7
	경기	91	8.8	27.5	31.9	15.4	16.5
	강원	31	3.2	12.9	48.4	25.8	9.7
	충북	20	0.0	20.0	45.0	15.0	20.0
	충남(세종)	39	5.1	28.2	28.2	28.2	10.3
	전북	55	9.1	27.3	34.5	18.2	10.9
	전남	45	6.7	26.7	37.8	17.8	11.1
	경북	31	9.7	19.4	45.2	12.9	12.9
	경남	55	5.5	36.4	30.9	10.9	16.4
제주	18	27.8	33.3	22.2	5.6	11.1	

2) 생산품 및 서비스 판로종류 및 비율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과 서비스를 어떤 경로를 통해 판매하는지 질문하였다. 자활기업의 44.9%가 정부와 계약을 맺는 B2G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43.9%가 소비자에게 직접판매(B2C), 10.5%가 기업과 계약(B2B)하는 방식이었다. B2C방식에서는 자체매장에서 판매하는 비율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유통·판

매(79.2%), 음식점(64.3%) 등의 업종에서 자체매장 판매 비율이 높았다. 한편 사회서비스(27.1%), 세탁·청소(19.0%)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는 비대면 창구를 이용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초기 인증기업(57.9%)의 경우 B2G방식의 계약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정부계약 경로를 선점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생산품 및 서비스 판로 종류 및 비율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B2C(소비자)					B2B 기업 계약	B2G 정부 계약	기타
			자체 매장	대형 온라인	직영 온라인	지역장터	비대면 창구			
	전체	624	28.0	3.8	1.1	2.8	8.2	10.5	44.9	0.7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26.8	4.8	0.9	3.1	9.5	9.4	45.0	0.6
	3인-5인 미만	256	32.1	4.4	1.3	3.5	7.0	8.8	42.4	0.6
	5인-10인 미만	163	23.9	2.1	1.2	1.9	7.4	13.8	48.5	1.2
	10인-15인 미만	18	13.6	1.7	0.3	0.0	13.4	10.9	60.1	0.0
	15인-30인 미만	13	28.8	7.8	0.0	0.0	5.8	18.5	39.2	0.0
	30인 이상	10	35.5	0.5	0.0	2.0	24.0	9.0	29.0	0.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15.9	2.9	0.2	1.1	9.8	12.3	57.9	0.1
	2010년-2015년	175	19.4	3.2	1.3	1.8	8.0	9.7	56.0	0.6
	2016년-2020년	184	33.6	4.2	1.4	2.9	8.4	9.8	38.0	1.7
	2020년 후	135	43.4	5.0	1.3	5.5	6.7	10.8	27.3	0.2
사업자	개인	270	37.6	4.6	1.4	3.9	8.4	8.8	34.6	0.8
	법인	354	20.8	3.3	0.9	1.9	8.0	11.8	52.8	0.7
업종	생산·가공	109	32.8	8.0	1.6	6.2	9.8	15.0	24.6	2.0
	집수리	135	5.3	0.4	0.2	0.3	1.4	10.2	81.5	0.8
	세탁·청소	121	19.0	2.7	1.5	1.7	12.9	19.0	43.2	0.0
	배송·운전	96	11.4	0.9	0.9	1.1	5.3	6.3	73.8	0.2
	음식점	68	64.3	7.2	1.3	4.8	9.6	2.9	9.8	0.0
	유통·판매	48	79.2	2.5	2.3	4.1	3.7	1.6	6.5	0.0
	사회서비스	32	26.6	10.9	0.2	3.1	27.1	5.6	23.4	3.1
	재활용·환경	8	65.6	6.3	1.3	4.4	4.4	5.6	12.5	0.0
	기타	7	38.4	4.6	0.6	4.3	5.9	19.1	27.1	0.0
소재지	서울	87	36.4	4.5	1.8	3.0	10.5	9.8	32.9	1.2
	부산	46	32.9	5.5	1.5	1.5	3.9	7.0	47.6	0.0
	대구	24	37.5	4.8	0.8	1.8	8.7	17.1	29.4	0.0
	인천	35	13.7	1.4	1.2	1.3	10.3	9.8	62.0	0.3
	광주	18	22.2	1.1	0.6	4.4	1.7	14.7	55.3	0.0
	대전	15	23.0	3.0	0.7	1.3	8.0	9.3	54.7	0.0
	울산	14	30.4	0.7	1.4	0.0	17.5	9.6	40.4	0.0
	경기	91	30.6	5.6	0.8	1.8	9.0	11.5	38.7	2.0

구분	사례수	B2C(소비자)					B2B 기업 계약	B2G 정부 계약	기타
		자체 매장	대형 온라인	직영 온라인	지역장터	비대면 창구			
강원	31	26.6	3.5	0.8	2.7	12.2	4.7	46.3	3.2
충북	20	22.8	8.5	1.3	1.8	6.0	12.3	47.3	0.3
충남(세종)	39	23.3	2.4	0.3	3.3	5.1	10.2	54.7	0.6
전북	55	24.5	3.2	2.0	4.1	11.5	11.9	42.9	0.0
전남	45	23.2	1.0	0.6	1.2	5.4	10.3	57.9	0.3
경북	31	21.4	3.6	1.1	2.0	9.4	4.4	58.2	0.0
경남	55	22.9	4.1	0.6	7.6	5.0	14.7	45.0	0.1
제주	18	54.4	3.1	1.4	1.9	5.0	10.3	23.9	0.0

3) 홍보 및 마케팅 활용

(1) 홍보 및 마케팅 활용방법

자활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홍보 및 마케팅 방법은 블로그/카페를 활용하는 것이 24.5%로 가장 많았으며, 자체 홈페이지(22.8%), 카카오톡/밴드/라인(12.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큰 기업은 자체홈페이지(60.0%)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중규모 이상의 기업(10-15인)에서는 신문/지면(23.1%)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활용·환경(87.5%), 사회서비스(71.9%) 업종은 다양한 경로로 홍보를 하고 있었다.

한편 전체 기업 중 49.2%가 홍보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업종 중 배송·운전(71.9%), 집수리(56.3%), 유통·판매(54.2%)가 홍보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홍보를 하지 않는 이유에는 홍보필요성이 없음(58.0%), 홍보 가능 인력없음(20.2%), 홍보 방법을 모름(1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홍보 및 마케팅 방법(중복)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자체 홈페이지	카카오	블로그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페이스북	신문	기타	안함	
전체	624	22.8	12.3	24.5	0.2	2.9	11.1	9.8	1.1	49.2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22.0	11.0	28.0	0.0	3.0	14.0	9.8	0.6	45.7
	3인-5인 미만	256	19.1	12.9	21.5	0.0	2.3	9.8	9.0	0.8	53.5
	5인-10인 미만	163	23.9	12.9	22.7	0.6	3.7	9.8	9.2	1.2	50.9
	10인-15인 미만	18	44.4	5.6	33.3	0.0	0.0	11.1	22.2	5.6	27.8
	15인-30인 미만	13	30.8	15.4	30.8	0.0	7.7	15.4	23.1	7.7	38.5
	30인 이상	10	60.0	20.0	50.0	0.0	0.0	10.0	0.0	0.0	20.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29.2	11.5	28.5	0.0	1.5	6.9	9.2	0.0	52.3
	2010년-2015년	175	26.9	8.6	21.7	0.0	3.4	8.0	11.4	0.6	49.7
	2016년-2020년	184	22.3	11.4	20.7	0.5	2.7	10.9	9.2	0.5	52.2
	2020년 후	135	11.9	19.3	29.6	0.0	3.7	19.3	8.9	3.7	41.5

	구분	사례수	자체 홈페이지	카카오	블로그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페이스북	신문	기타	안함
사업자	개인	270	14.1	13.3	20.0	0.0	2.2	10.4	7.8	1.1	55.2
	법인	354	29.4	11.6	28.0	0.3	3.4	11.6	11.3	1.1	44.6
업종	생산·가공	109	22.9	14.7	22.9	0.9	2.8	18.3	8.3	0.0	46.8
	집수리	135	16.3	6.7	17.0	0.0	1.5	5.9	13.3	0.0	56.3
	세탁·청소	121	30.6	14.0	33.9	0.0	4.1	9.1	17.4	2.5	38.8
	배송·운전	96	18.8	9.4	4.2	0.0	1.0	3.1	4.2	0.0	71.9
	음식점	68	11.8	11.8	35.3	0.0	4.4	27.9	2.9	2.9	38.2
	유통·판매	48	16.7	14.6	20.8	0.0	0.0	4.2	6.3	2.1	54.2
	사회서비스	32	53.1	18.8	56.3	0.0	0.0	9.4	9.4	0.0	28.1
	재활용·환경	8	50.0	25.0	50.0	0.0	25.0	12.5	12.5	12.5	12.5
	기타	7	42.9	42.9	57.1	0.0	28.6	28.6	0.0	0.0	28.6
소재지	서울	87	21.8	17.2	26.4	0.0	4.6	6.9	13.8	3.4	42.5
	부산	46	15.2	6.5	28.3	0.0	4.3	19.6	10.9	0.0	52.2
	대구	24	25.0	12.5	45.8	0.0	0.0	4.2	4.2	0.0	45.8
	인천	35	37.1	5.7	25.7	0.0	2.9	5.7	2.9	0.0	48.6
	광주	18	33.3	11.1	5.6	0.0	0.0	5.6	5.6	0.0	44.4
	대전	15	13.3	6.7	6.7	0.0	0.0	20.0	6.7	6.7	60.0
	울산	14	7.1	7.1	28.6	0.0	0.0	21.4	7.1	7.1	50.0
	경기	91	36.3	12.1	29.7	0.0	2.2	9.9	8.8	1.1	46.2
	강원	31	32.3	3.2	22.6	3.2	6.5	16.1	9.7	0.0	41.9
	충북	20	35.0	35.0	40.0	0.0	0.0	20.0	10.0	0.0	35.0
	충남(세종)	39	20.5	10.3	30.8	0.0	5.1	12.8	5.1	0.0	51.3
	전북	55	12.7	18.2	18.2	0.0	1.8	3.6	12.7	0.0	54.5
	전남	45	6.7	6.7	11.1	0.0	0.0	4.4	13.3	0.0	71.1
	경북	31	19.4	16.1	29.0	0.0	3.2	16.1	3.2	0.0	45.2
	경남	55	20.0	9.1	16.4	0.0	5.5	12.7	12.7	0.0	50.9
제주	18	16.7	22.2	22.2	0.0	0.0	27.8	16.7	5.6	44.4	

4) 자활기업의 자금조달

(1) 자금조달 방법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정부정책자금(중소기업공단, 신용보증재단, 신보기금 등)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일반금융기관 대출(18.1%), 조합원 출자금(7.5%) 순으로 나타났다. 집수리(6.7%) 업종은 대표자 지인 등 개인차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53.7%가 자금을 대출받거나 조달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규모 이상(15-20인)의 기업에서 61.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5〉 자활기업 자금조달 방법(중복응답)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없음	금융 대출	정부 자금	사회적 금융	연대공 제기금	출자금	후원금	타자활	개인 차입	기타
	전체	624	53.7	18.1	28.0	1.9	3.0	7.5	1.8	1.8	2.9	0.3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55.5	14.6	31.1	1.8	1.2	4.3	0.6	1.2	2.4	0.0
	3인-5인 미만	256	57.0	17.6	21.5	0.8	2.0	7.8	2.7	2.3	4.3	0.4
	5인-10인 미만	163	50.3	19.6	33.1	3.1	3.7	9.8	0.6	1.2	1.8	0.6
	10인-15인 미만	18	38.9	33.3	27.8	5.6	16.7	5.6	0.0	0.0	0.0	0.0
	15인-30인 미만	13	61.5	15.4	30.8	0.0	0.0	0.0	0.0	0.0	0.0	0.0
	30인 이상	10	10.0	40.0	60.0	10.0	30.0	30.0	20.0	10.0	0.0	0.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35.4	34.6	36.2	3.1	3.1	6.9	2.3	0.0	3.1	0.0
	2010년-2015년	175	53.7	21.7	31.4	2.3	5.7	5.7	1.7	2.3	2.9	0.0
	2016년-2020년	184	57.6	14.1	26.6	1.6	2.2	8.7	1.6	0.5	1.6	1.1
	2020년 후	135	65.9	3.0	17.8	0.7	0.7	8.9	1.5	4.4	4.4	0.0
사업자	개인	270	58.5	15.6	23.0	1.1	0.4	4.4	1.1	2.2	3.7	0.4
	법인	354	50.0	20.1	31.9	2.5	5.1	9.9	2.3	1.4	2.3	0.3
업종	생산·가공	109	55.0	20.2	31.2	0.9	4.6	4.6	1.8	0.0	3.7	0.9
	집수리	135	36.3	35.6	36.3	2.2	3.7	5.2	0.7	1.5	6.7	0.0
	세탁·청소	121	59.5	15.7	22.3	2.5	0.8	5.0	0.0	1.7	1.7	0.0
	배송·운전	96	65.6	9.4	21.9	1.0	3.1	7.3	1.0	3.1	0.0	1.0
	음식점	68	57.4	4.4	23.5	2.9	0.0	13.2	4.4	2.9	4.4	0.0
	유통·판매	48	56.3	10.4	27.1	0.0	4.2	12.5	2.1	2.1	0.0	0.0
	사회서비스	32	50.0	15.6	34.4	3.1	9.4	18.8	9.4	3.1	0.0	0.0
	재활용·환경	8	62.5	25.0	25.0	12.5	0.0	0.0	0.0	0.0	0.0	0.0
	기타	7	57.1	0.0	28.6	0.0	0.0	14.3	0.0	0.0	0.0	0.0
소재지	서울	87	47.1	14.9	26.4	6.9	5.7	14.9	5.7	1.1	1.1	1.1
	부산	46	47.8	17.4	32.6	2.2	2.2	8.7	4.3	4.3	4.3	0.0
	대구	24	70.8	4.2	16.7	0.0	0.0	4.2	0.0	0.0	4.2	0.0
	인천	35	60.0	20.0	25.7	2.9	2.9	0.0	0.0	2.9	2.9	0.0
	광주	18	72.2	0.0	22.2	0.0	0.0	0.0	0.0	0.0	5.6	0.0
	대전	15	40.0	6.7	33.3	6.7	6.7	13.3	0.0	0.0	13.3	0.0
	울산	14	42.9	28.6	42.9	0.0	0.0	0.0	0.0	0.0	0.0	0.0
	경기	91	54.9	17.6	25.3	1.1	1.1	5.5	0.0	5.5	2.2	0.0
	강원	31	51.6	22.6	38.7	0.0	6.5	3.2	0.0	0.0	0.0	0.0
	충북	20	60.0	20.0	25.0	0.0	5.0	5.0	5.0	0.0	0.0	0.0
	충남(세종)	39	33.3	33.3	46.2	2.6	5.1	17.9	2.6	0.0	5.1	0.0
	전북	55	54.5	25.5	23.6	1.8	5.5	5.5	1.8	1.8	3.6	0.0

	구분	사례수	없음	금융 대출	정부 자금	사회적 금융	연대공 제기금	출자금	후원금	타자활	개인 차입	기타
	전남	45	64.4	13.3	22.2	0.0	0.0	4.4	0.0	0.0	4.4	0.0
	경북	31	48.4	25.8	22.6	0.0	0.0	12.9	3.2	0.0	0.0	3.2
	경남	55	61.8	16.4	25.5	0.0	1.8	5.5	0.0	1.8	1.8	0.0
	제주	18	55.6	11.1	38.9	0.0	5.6	5.6	0.0	0.0	5.6	0.0

(2) 자금조달 용도

지난 3년간 조달한 자금의 용도는 운영자금/인건비(83.4%), 시설 및 공간자금(34.3%), 차입금 대환(6.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2020년 이후)에 인증받은 신생 자활기업이 시설 및 공간자금(46.3%)으로 자금을 많이 활용하였으며, 이는 설비와 임차료 등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통·판매 업종에서는 운영자금(100%)으로, 생산·가공업종에서는 시설 및 공간자금(46.7%)으로 활용한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6〉 자금용도(복수응답)

(단위 : 개, 만원, %)

	구분	사례수	운영자금	시설 및 공간자금	차입금 대환	기타
기업 규모	전체	277	83.4	34.3	6.5	3.2
	1인-3인 미만	70	85.7	32.9	7.1	2.9
	3인-5인 미만	103	85.4	30.1	5.8	4.9
	5인-10인 미만	79	86.1	35.4	6.3	0.0
	10인-15인 미만	11	72.7	45.5	9.1	9.1
	15인-30인 미만	5	80.0	60.0	0.0	0.0
	30인 이상	9	33.3	55.6	11.1	11.1
인증 시기	2010년 전	80	82.5	28.8	8.8	2.5
	2010년-2015년	79	84.8	32.9	7.6	3.8
	2016년-2020년	77	84.4	35.1	5.2	3.9
	2020년 후	41	80.5	46.3	2.4	2.4
사업자	개인	105	88.6	25.7	6.7	3.8
	법인	172	80.2	39.5	6.4	2.9
업종	생산·가공	45	75.6	46.7	6.7	0.0
	집수리	81	95.1	23.5	9.9	3.7
	세탁·청소	48	79.2	27.1	6.3	6.3
	배송·운전	33	78.8	45.5	0.0	3.0
	음식점	27	85.2	37.0	0.0	0.0
	유통·판매	21	100.0	23.8	9.5	0.0
	사회서비스	16	50.0	50.0	6.3	12.5
	재활용·환경	3	66.7	66.7	33.3	0.0
기타	3	66.7	66.7	0.0	0.0	

	구분	사례수	운영자금	시설 및 공간자금	차입금 대한	기타
소재지	서울	44	86.4	36.4	13.6	0.0
	부산	24	87.5	33.3	12.5	8.3
	대구	6	83.3	33.3	0.0	0.0
	인천	13	84.6	38.5	0.0	0.0
	광주	4	50.0	75.0	0.0	0.0
	대전	7	71.4	28.6	0.0	14.3
	울산	8	100.0	25.0	12.5	0.0
	경기	39	76.9	38.5	2.6	2.6
	강원	15	80.0	33.3	0.0	6.7
	충북	8	75.0	50.0	0.0	12.5
	충남(세종)	26	84.6	30.8	7.7	3.8
	전북	24	75.0	37.5	16.7	0.0
	전남	15	100.0	0.0	0.0	6.7
	경북	16	81.3	37.5	0.0	0.0
	경남	21	95.2	23.8	0.0	4.8
	제주	7	71.4	71.4	14.3	0.0

(3) 자금조달 규모

지난 3년간 조달한 자금 규모는 평균 약 1억 4천 6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운영자금이 140.3백만 원, 시설 및 공간 자금 78.7백만원, 차입금 26.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 중 사회서비스의 경우 시설 및 공간자금으로 활용한 금액이 160.4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과 강원에서 시설 및 공간 자금으로 각각 200.0백만원, 181.6백만원을 조달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7〉 자금규모(복수응답)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사례수	합계 평균	종류			
				운영자금	시설 및 공간	차입금	기타
	전체	245	146.6	140.3	78.7	26.9	48.0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64	148.1	147.4	59.5	30.0	32.0
	3인-5인 미만	92	135.0	133.0	55.6	31.8	69.0
	5인-10인 미만	69	163.1	150.4	90.6	23.2	-
	10인-15인 미만	10	127.3	125.4	77.2	10.0	1.0
	15인-30인 미만	3	212.0	115.0	200.0	-	-
	30인 이상	7	113.3	53.3	168.4	17.0	1.0
인증 시기	2010년 전	70	117.2	100.0	110.4	30.0	12.5
	2010년-2015년	69	171.1	161.9	96.2	23.0	9.7

	구분	사례수	합계 평균	종류			
				운영자금	시설 및 공간	차입금	기타
	2016년-2020년	67	158.6	162.8	54.8	33.8	25.3
	2020년 후	39	134.7	132.5	49.1	1.0	175.0
사업자	개인	98	115.0	116.1	38.0	24.3	32.3
	법인	147	165.8	156.6	94.3	28.6	58.5
업종	생산·가공	40	174.7	165.9	102.7	21.7	30.0
	집수리	68	157.5	134.6	107.6	31.9	5.0
	세탁·청소	45	139.3	155.9	52.6	22.0	50.0
	배송·운전	32	104.1	109.6	35.7	-	-
	음식점	23	115.5	121.7	35.7	-	-
	유통·판매	19	196.4	172.8	65.4	33.0	300.0
	사회서비스	12	142.2	118.8	160.4	17.0	12.5
	재활용·환경	3	75.3	90.0	15.5	15.0	-
	기타	3	28.3	35.0	7.5	-	-
소재지	서울	41	120.3	109.6	48.4	28.8	300.0
	부산	21	143.0	141.4	43.6	17.0	32.0
	대구	6	93.3	84.0	69.9	-	-
	인천	9	179.2	120.9	200.0	-	-
	광주	4	197.8	347.0	32.3	-	-
	대전	6	164.9	206.6	60.0	-	1.0
	울산	7	180.3	175.9	7.5	20.0	-
	경기	31	187.1	204.5	73.8	45.0	10.0
	강원	14	125.6	77.2	181.6	-	50.0
	충북	7	138.8	119.7	92.0	-	24.0
	충남(세종)	24	146.7	155.3	37.7	60.0	15.0
	전북	23	103.5	84.9	99.0	16.3	-
	전남	14	65.4	64.4	-	-	15.0
	경북	14	109.1	108.2	56.7	-	-
	경남	19	200.1	189.8	80.8	-	1.0
제주	5	302.9	298.0	124.0	10.0	-	

(4) 자금조달 시 문제점

자금을 조달하며 느낀 가장 어려운 점은 제출서류 구비(16.3%), 높은이자(14.7%), 재무성과 및 기업가치 입증(12.7%), 담보 및 보증 부담(1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사업자는 제출서류 구비(19.6%)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기업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16.1%)에 어려움을 느낀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8〉 자금 조달 어려움점

(단위: 개, %)

	구분	사례수	제출서류	높은이자	소요시간	담보부담	가치입증	상환기간	기타	없음
	전체	624	16.3	14.7	1.0	11.5	12.7	4.0	1.9	37.8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19.5	12.2	0.6	7.9	10.4	3.7	0.6	45.1
	3인-5인 미만	256	15.6	15.6	0.4	13.3	12.9	4.3	2.0	35.9
	5인-10인 미만	163	15.3	12.9	2.5	12.3	15.3	3.1	2.5	36.2
	10인-15인 미만	18	16.7	27.8	0.0	11.1	11.1	0.0	11.1	22.2
	15인-30인 미만	13	7.7	15.4	0.0	15.4	7.7	0.0	0.0	53.8
	30인 이상	10	10.0	40.0	0.0	10.0	10.0	30.0	0.0	0.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15.4	23.1	0.8	13.1	10.8	6.2	0.0	30.8
	2010년-2015년	175	12.0	21.1	0.6	10.3	13.7	4.0	2.3	36.0
	2016년-2020년	184	17.4	10.9	1.1	14.1	9.8	2.7	3.8	40.2
	2020년 후	135	21.5	3.7	1.5	8.1	17.0	3.7	0.7	43.7
사업자	개인	270	19.6	14.1	0.7	10.0	8.1	4.4	1.5	41.5
	법인	354	13.8	15.3	1.1	12.7	16.1	3.7	2.3	35.0
업종	생산·가공	109	11.0	14.7	0.0	16.5	10.1	3.7	2.8	41.3
	집수리	135	14.1	25.9	0.7	11.1	17.0	5.2	1.5	24.4
	세탁·청소	121	22.3	11.6	0.8	10.7	12.4	3.3	0.8	38.0
	배송·운전	96	14.6	9.4	2.1	12.5	12.5	1.0	0.0	47.9
	음식점	68	19.1	7.4	1.5	7.4	8.8	5.9	4.4	45.6
	유통·판매	48	20.8	14.6	0.0	10.4	8.3	2.1	4.2	39.6
	사회서비스	32	12.5	18.8	3.1	6.3	15.6	6.3	0.0	37.5
	재활용·환경	8	0.0	0.0	0.0	12.5	37.5	12.5	12.5	25.0
	기타	7	42.9	0.0	0.0	14.3	0.0	14.3	0.0	28.6
소재지	서울	87	14.9	11.5	1.1	8.0	13.8	6.9	2.3	41.4
	부산	46	30.4	8.7	2.2	10.9	6.5	2.2	4.3	34.8
	대구	24	25.0	12.5	0.0	8.3	16.7	0.0	0.0	37.5
	인천	35	2.9	25.7	2.9	14.3	17.1	2.9	2.9	31.4
	광주	18	11.1	0.0	0.0	5.6	11.1	5.6	5.6	61.1
	대전	15	26.7	13.3	0.0	6.7	20.0	0.0	0.0	33.3

	구분	사례수	제출서류	높은이자	소요시간	담보부담	가치인증	상환기간	기타	없음
	울산	14	7.1	21.4	0.0	7.1	14.3	14.3	0.0	35.7
	경기	91	22.0	16.5	1.1	9.9	12.1	3.3	2.2	33.0
	강원	31	12.9	12.9	0.0	19.4	6.5	6.5	3.2	38.7
	충북	20	10.0	25.0	0.0	25.0	0.0	0.0	0.0	40.0
	충남(세종)	39	12.8	23.1	0.0	12.8	17.9	7.7	2.6	23.1
	전북	55	20.0	12.7	0.0	10.9	16.4	3.6	0.0	36.4
	전남	45	11.1	17.8	2.2	11.1	6.7	4.4	0.0	46.7
	경북	31	12.9	22.6	0.0	16.1	6.5	0.0	0.0	41.9
	경남	55	12.7	9.1	1.8	7.3	21.8	3.6	1.8	41.8
	제주	18	16.7	5.6	0.0	27.8	5.6	0.0	5.6	38.9

3. 자활기업 네트워크 및 협력

자활기업의 네트워크 및 협력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조직과 얼마나 협력하는지, 협의체에 가입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였다.

1) 자활기업의 네트워크 활동

(1) 네트워크 경험

자활기업이 사업운영을 위해 다른 조직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0.5%가 협력경험이 있으며, 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58.5%), 다른 자활기업과 협력(49.5%),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43.3%), 사회복지시설과 협력(43.1%)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인증받은 기업이 협력경험(71.1%)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개인사업자가 협력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4.8%). 반면 법인사업자는 협력경험이 낮지만, 협력을 한다면 민간기업(29.1%)과 협력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집수리(83.7%) 업종은 지자체·공공기관과 협력한 경험이 매우 높으며, 사회복지서비스업(75.0%)은 다른 자활기업과의 협력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타조직과 협력사업 수행경험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경험 있음	협력기관(중복응답)				
				타 자활기업	타 사경조직	지자체·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
	전체	624	50.5	49.5	43.3	58.5	43.1	24.2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54.9	45.1	39.6	57.9	39.0	22.0
	3인-5인 미만	256	55.1	44.9	37.5	57.0	39.5	20.7

	구분	사례수	경험 있음	협력기관(중복응답)				
				타 자활기업	타 사경조직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복지 시설	민간기업
	5인~10인 미만	163	47.9	52.1	47.9	58.9	47.2	28.2
	10인~15인 미만	18	16.7	83.3	77.8	72.2	72.2	50.0
	15인~30인 미만	13	15.4	84.6	69.2	76.9	69.2	38.5
	30인 이상	10	10.0	90.0	80.0	50.0	50.0	20.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38.5	61.5	57.7	66.2	62.3	33.8
	2010년~2015년	175	35.4	64.6	52.6	65.7	42.3	28.0
	2016년~2020년	184	58.2	41.8	37.0	54.3	37.5	19.6
	2020년 후	135	71.1	28.9	25.9	47.4	33.3	16.3
사업자	개인	270	64.8	35.2	28.1	47.0	33.0	17.8
	법인	354	39.5	60.5	54.8	67.2	50.8	29.1
업종	생산·가공	109	54.1	45.9	40.4	45.0	37.6	29.4
	집수리	135	38.5	61.5	57.0	83.7	60.7	30.4
	세탁·청소	121	38.0	62.0	49.6	58.7	57.9	31.4
	배송·운전	96	57.3	42.7	32.3	67.7	21.9	15.6
	음식점	68	73.5	26.5	26.5	39.7	30.9	10.3
	유통·판매	48	77.1	22.9	27.1	29.2	18.8	16.7
	사회서비스	32	25.0	75.0	62.5	53.1	56.3	21.9
	재활용·환경	8	50.0	50.0	37.5	62.5	25.0	12.5
기타	7	57.1	42.9	57.1	57.1	71.4	28.6	
소재지	서울	87	48.3	51.7	43.7	57.5	41.4	23.0
	부산	46	56.5	43.5	37.0	52.2	43.5	17.4
	대구	24	79.2	20.8	29.2	37.5	33.3	4.2
	인천	35	34.3	65.7	54.3	68.6	51.4	20.0
	광주	18	66.7	33.3	33.3	55.6	27.8	11.1
	대전	15	26.7	73.3	60.0	80.0	60.0	13.3
	울산	14	35.7	64.3	35.7	42.9	35.7	28.6
	경기	91	37.4	62.6	50.5	63.7	50.5	31.9
	강원	31	48.4	51.6	38.7	67.7	51.6	25.8
	충북	20	45.0	55.0	50.0	55.0	50.0	45.0
	충남(세종)	39	43.6	56.4	53.8	64.1	41.0	30.8
	전북	55	50.9	49.1	49.1	54.5	43.6	25.5
	전남	45	66.7	33.3	22.2	57.8	28.9	22.2
	경북	31	51.6	48.4	41.9	61.3	41.9	29.0
경남	55	67.3	32.7	40.0	60.0	38.2	21.8	
제주	18	50.0	50.0	44.4	38.9	50.0	22.2	

(2) 네트워크 연계정도

협력한 기관과의 연계정도를 조사한 결과 4점 만점기준으로 지자체·공공기관 2.8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 자활기업(2.5점), 타 사회적경제조직(2.5점), 사회복지시설(2.4점), 민간기업(2.1점)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협력의 경험은 낮지만 협력한 경우 연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자활기업과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수준을 2.6점으로 평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집수리(3.0점), 배송·운전(3.0점) 업종은 지자체·공공기관과의 연계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판매경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타조직과 협력사업 연계 정도(4점만점)

(단위 : 개, 점)

	구분	타 자활기업		타 사경조직		지자체·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	
		n	점	n	점	n	점	n	점	n	점
	전체	309	2.5	270	2.5	365	2.8	269	2.4	151	2.1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74	2.3	65	2.5	95	2.8	64	2.4	36	2.1
	3인-5인 미만	115	2.5	96	2.5	146	2.7	101	2.3	53	2.1
	5인-10인 미만	85	2.5	78	2.5	96	2.9	77	2.4	46	2.0
	10인-15인 미만	15	2.7	14	2.7	13	2.8	13	2.5	9	1.9
	15인-30인 미만	11	2.8	9	2.4	10	2.9	9	2.4	5	2.8
	30인 이상	9	3.1	8	3.0	5	2.8	5	3.2	2	2.0
인증 시기	2010년 전	80	2.6	75	2.6	86	2.9	81	2.4	44	2.0
	2010년-2015년	113	2.5	92	2.6	115	2.8	74	2.3	49	2.1
	2016년-2020년	77	2.3	68	2.4	100	2.7	69	2.5	36	2.2
	2020년 후	39	2.7	35	2.5	64	2.8	45	2.3	22	2.1
사업자	개인	95	2.2	76	2.3	127	2.7	89	2.3	48	2.0
	법인	214	2.6	194	2.6	238	2.8	180	2.4	103	2.1
업종	생산·가공	50	2.6	44	2.9	49	2.8	41	2.5	32	2.5
	집수리	83	2.6	77	2.6	113	3.0	82	2.4	41	1.8
	세탁·청소	75	2.4	60	2.5	71	2.7	70	2.2	38	2.0
	배송·운전	41	2.6	31	2.5	65	3.0	21	2.5	15	2.3
	음식점	18	2.2	18	2.3	27	2.4	21	2.4	7	2.0
	유통·판매	11	2.1	13	1.8	14	2.0	9	2.0	8	1.6
	사회서비스	24	2.7	20	2.6	17	2.5	18	2.4	7	2.7
	재활용·환경	4	3.0	3	2.7	5	2.4	2	1.5	1	1.0
	기타	3	1.7	4	2.0	4	2.8	5	2.4	2	2.0
소재지	서울	45	2.4	38	2.6	50	2.6	36	2.2	20	1.8
	부산	20	2.6	17	2.6	24	2.8	20	2.5	8	1.8
	대구	5	2.2	7	2.3	9	2.8	8	2.4	1	3.0

구분	타 자활기업		타 사경조직		지자체·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기업	
	n	점	n	점	n	점	n	점	n	점
인천	23	2.5	19	2.6	24	2.8	18	2.3	7	1.4
광주	6	3.0	6	3.0	10	3.0	5	3.0	2	2.5
대전	11	2.4	9	2.8	12	2.8	9	2.1	2	2.0
울산	9	2.8	5	2.6	6	3.2	5	3.2	4	2.3
경기	57	2.5	46	2.4	58	2.7	46	2.2	29	1.9
강원	16	2.6	12	2.5	21	2.7	16	2.4	8	2.6
충북	11	2.6	10	2.6	11	2.6	10	2.5	9	2.3
충남(세종)	22	2.8	21	2.8	25	2.8	16	2.5	12	2.4
전북	27	2.7	27	2.5	30	2.8	24	2.4	14	2.1
전남	15	2.4	10	2.4	26	2.9	13	2.4	10	2.3
경북	15	2.3	13	2.4	19	3.1	13	2.5	9	1.9
경남	18	2.2	22	2.2	33	2.8	21	2.4	12	2.5
제주	9	2.3	8	2.8	7	2.7	9	2.4	4	2.3

2) 협의체 활동

자활기업이 영업하고 있는 지역이나 업종별로 협의체, 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지 조사한 결과 55.3%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은 80%가 연합회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인증기업(2010년 이전) 역시 70.0%가 연합회에 가입하고 있어 조직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연합회에 가입한 이유는 타 조직과 협력하고(53.9%), 자원을 확보하고(22.3%),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16.5%)이 주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재활용·환경(80.0%), 집수리(60.4%)와 같은 업종은 타 조직과의 협력을 위해 높은 협의체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표 21〉 협의체 가입여부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가입	가입 이유				미가입	
			새로운 아이디어	타조직협력	자원확보	공동기금 조성		
전체	624	55.3	16.5	53.9	22.3	7.2	44.7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54.9	24.4	45.6	22.2	7.8	45.1
	3인-5인 미만	256	48.4	14.5	55.6	22.6	7.3	51.6
	5인-10인 미만	163	62.0	14.9	53.5	25.7	5.9	38.0
	10인-15인 미만	18	77.8	0.0	78.6	14.3	7.1	22.2
	15인-30인 미만	13	61.5	12.5	75.0	-	12.5	38.5
	30인 이상	10	80.0	12.5	62.5	12.5	12.5	20.0

	구분	사례수	가입	가입 이유				미가입
				새로운 아이디어	타조직협력	자원확보	공동기금 조성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70.0	12.1	61.5	17.6	8.8	30.0
	2010년-2015년	175	63.4	16.2	47.7	26.1	9.9	36.6
	2016년-2020년	184	48.9	17.8	52.2	24.4	5.6	51.1
	2020년 후	135	39.3	22.6	56.6	18.9	1.9	60.7
사업자	개인	270	40.4	22.0	45.0	29.4	3.7	59.6
	법인	354	66.7	14.0	58.1	19.1	8.9	33.3
업종	생산·가공	109	40.4	13.6	50.0	34.1	2.3	59.6
	집수리	135	71.1	16.7	60.4	16.7	6.3	28.9
	세탁·청소	121	54.5	13.6	56.1	21.2	9.1	45.5
	배송·운전	96	70.8	22.1	41.2	23.5	13.2	29.2
	음식점	68	36.8	20.0	60.0	20.0	-	63.2
	유통·판매	48	33.3	6.3	50.0	37.5	6.3	66.7
	사회서비스	32	65.6	14.3	61.9	19.0	4.8	34.4
	재활용·환경	8	62.5	20.0	80.0	-	-	37.5
	기타	7	57.1	25.0	25.0	25.0	25.0	42.9
소재지	서울	87	58.6	9.8	58.8	25.5	5.9	41.4
	부산	46	47.8	18.2	45.5	27.3	9.1	52.2
	대구	24	41.7	10.0	40.0	50.0	-	58.3
	인천	35	71.4	24.0	56.0	16.0	4.0	28.6
	광주	18	55.6	20.0	60.0	10.0	10.0	44.4
	대전	15	66.7	20.0	60.0	10.0	10.0	33.3
	울산	14	57.1	12.5	37.5	37.5	12.5	42.9
	경기	91	59.3	16.7	51.9	22.2	9.3	40.7
	강원	31	71.0	18.2	63.6	13.6	4.5	29.0
	충북	20	50.0	10.0	40.0	20.0	30.0	50.0
	충남(세종)	39	71.8	28.6	53.6	14.3	3.6	28.2
	전북	55	49.1	7.4	51.9	25.9	14.8	50.9
	전남	45	28.9	23.1	46.2	30.8	-	71.1
	경북	31	64.5	30.0	45.0	20.0	5.0	35.5
	경남	55	47.3	11.5	65.4	19.2	3.8	52.7
제주	18	50.0	-	66.7	33.3	-	50.0	

4. 자활기업 조직성과

자활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가치 실천정도, 우선되어야 할 가치, 경제적 성과 변화, 사회적 성과 변화를 조사하였다.

1) 자활기업의 사회적 가치

자활기업의 사회적가치 실천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①조직 미션 및 가치공유, ②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③취약계층 안정적,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④지역사회·시민과 소통 ⑤선한 영향력 실현 및 확산, ⑥공공·민간·시민사회와 협력, ⑦혁신 활동 강화, ⑧공유가치 창출 추진 활동 강화, ⑨전문직업적 역량 강화, ⑩관료적 관행 극복, ⑪이익분배의 윤리성·투명성 강화로 구분하고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이 순서는 사회적가치의 문항 순서와 같다.

(1) 사회적가치 실천정도

자활기업의 사회적가치 실천정도는 11개 문항 평균 3.2점(5점만점)으로 나타났다. 그 중 ⑪이익분배의 윤리성, 투명성강화가 3.6점으로 가장 잘 실천하고 있었으며, ③취약계층 안정적,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이 3.5점, ④지역사회·시민과 소통 ⑤선한 영향력 실현 및 확산이 각각 3.3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⑦혁신 활동 강화, ⑧공유가치 창출 추진 활동 강화 등은 2.8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업종은 ⑪이익분배의 윤리성, 투명성강화를 4.0점 수준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②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역시 3.9점 수준으로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타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22〉 자활기업 사회적가치 실천정도(5점 만점)

(단위: 개, 점)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	624	3.2	3.4	3.5	3.3	3.3	3.2	2.8	2.8	3.1	2.9	3.6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3.1	3.3	3.3	3.2	3.3	3.1	2.8	2.8	3.0	2.8	3.6
	3인-5인 미만	256	3.1	3.4	3.5	3.3	3.3	3.2	2.8	2.8	3.0	2.9	3.6
	5인-10인 미만	163	3.3	3.5	3.6	3.2	3.3	3.1	2.7	2.9	3.1	3.0	3.7
	10인-15인 미만	18	3.5	3.9	4.1	3.4	3.7	3.4	3.1	2.9	3.2	3.2	3.9
	15인-30인 미만	13	3.3	3.9	3.9	3.5	3.5	3.4	3.1	2.9	3.2	3.2	4.0
	30인 이상	10	3.5	4.0	3.7	3.7	3.5	3.4	2.6	2.8	3.2	3.4	3.8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3.4	3.6	3.6	3.4	3.4	3.4	2.8	2.9	3.1	3.1	3.7
	2010년-2015년	175	3.3	3.5	3.6	3.3	3.4	3.1	2.8	2.9	3.1	2.9	3.7
	2016년-2020년	184	3.1	3.3	3.4	3.2	3.2	3.1	2.6	2.7	2.9	2.9	3.5
	2020년 후	135	3.1	3.3	3.4	3.2	3.2	3.0	2.9	2.9	3.1	3.0	3.7
사업자	개인	270	3.0	3.1	3.2	3.2	3.2	3.0	2.7	2.7	2.9	2.8	3.5
	법인	354	3.4	3.7	3.7	3.3	3.4	3.2	2.8	2.9	3.2	3.1	3.7
업종	생산·가공	109	3.1	3.4	3.4	3.2	3.2	2.9	2.6	2.7	2.9	2.8	3.4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11)
	집수리	135	3.4	3.6	3.6	3.5	3.5	3.5	2.9	3.0	3.2	3.1	3.7
	세탁·청소	121	3.2	3.4	3.5	3.1	3.2	3.1	2.9	2.9	3.1	2.9	3.5
	배송·운전	96	3.1	3.4	3.5	3.3	3.3	3.2	2.8	2.8	3.0	3.0	3.8
	음식점	68	3.0	3.3	3.2	3.2	3.2	3.0	2.7	2.8	3.0	2.9	3.5
	유통·판매	48	2.9	3.3	3.3	3.1	3.0	2.8	2.7	2.6	2.8	2.9	3.7
	사회서비스	32	3.6	3.9	3.8	3.5	3.6	3.4	2.8	2.9	3.3	3.1	4.0
	재활용·환경	8	3.1	3.0	3.3	3.8	3.6	3.0	2.8	2.9	3.0	3.1	3.5
	기타	7	3.1	2.9	3.1	3.7	3.4	3.4	3.1	3.1	3.6	3.0	4.3
소재지	서울	87	3.1	3.3	3.4	3.2	3.2	2.9	2.6	2.7	2.9	2.7	3.6
	부산	46	3.2	3.2	3.3	3.2	3.2	3.1	2.7	2.8	3.0	2.9	3.5
	대구	24	3.2	3.3	3.5	3.4	3.3	3.0	2.9	3.1	3.2	3.3	3.8
	인천	35	3.4	3.7	3.7	3.3	3.5	3.3	3.0	3.0	3.0	3.2	3.8
	광주	18	3.2	3.6	3.7	3.3	3.6	3.3	3.1	3.0	3.1	3.0	3.7
	대전	15	3.1	3.3	3.3	3.2	3.5	3.3	2.7	2.8	3.4	3.1	3.6
	울산	14	3.4	3.4	3.6	3.4	3.3	3.0	2.9	3.1	3.5	2.9	3.7
	경기	91	3.1	3.6	3.6	3.3	3.3	3.0	2.8	2.9	3.1	2.9	3.7
	강원	31	3.3	3.4	3.5	3.4	3.3	3.1	2.8	2.8	3.0	3.0	3.7
	충북	20	3.3	3.6	3.4	3.2	3.4	3.2	2.9	2.8	3.0	3.1	3.4
	충남(세종)	39	3.3	3.7	3.7	3.2	3.3	3.3	2.9	2.9	3.1	3.1	3.6
	전북	55	3.1	3.3	3.4	3.2	3.3	3.2	2.8	2.9	3.2	3.0	3.6
	전남	45	3.3	3.2	3.5	3.4	3.4	3.5	2.8	2.8	2.9	2.8	3.4
	경북	31	3.3	3.5	3.4	3.6	3.6	3.6	2.9	3.0	3.3	3.2	3.7
	경남	55	3.0	3.4	3.4	3.0	3.1	3.1	2.6	2.8	2.9	2.8	3.6
	제주	18	3.4	3.4	3.8	3.4	3.6	3.2	2.9	2.8	2.7	2.9	3.6

(2) 중요한 사회적가치

자활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 ③취약계층 안정적·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이 74.2%로 가장 높았으며, ②취약계층 일자리 확대(47.1%), ①조직 미션 및 가치공유(16.7%), ④지역사회·시민과 소통(13.6%)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④지역사회·시민과 소통을 중요시 하는 것이, 법인사업자는 ①조직 미션 및 가치공유를 중요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주목할 만하다.

업종 중 재활·환경에서는 ④지역사회·시민과 소통을 중요시 하는 것, 집수리에서는 ⑨전문직업적 역량 강화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각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운영하는데 중요한 사회적가치(1순위+2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	624	16.7	47.1	74.2	13.6	11.1	10.6	1.1	4.3	12.0	0.5	8.8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16.5	43.9	67.1	17.1	8.5	12.8	1.2	7.9	15.9	1.2	7.9
	3인-5인 미만	256	17.2	45.7	75.0	15.2	12.1	10.9	0.8	3.1	12.1	0.0	7.8
	5인-10인 미만	163	16.0	50.9	79.1	8.0	11.0	8.6	1.8	3.1	10.4	0.6	10.4
	10인-15인 미만	18	16.7	50.0	77.8	16.7	5.6	11.1	0.0	0.0	5.6	0.0	16.7
	15인-30인 미만	13	7.7	69.2	84.6	7.7	15.4	7.7	0.0	0.0	0.0	0.0	7.7
	30인 이상	10	30.0	40.0	70.0	10.0	30.0	0.0	0.0	0.0	10.0	0.0	10.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20.8	37.7	73.1	15.4	12.3	13.8	2.3	3.1	12.3	0.8	8.5
	2010년-2015년	175	20.6	48.6	75.4	11.4	8.0	7.4	0.6	3.4	13.1	0.6	10.9
	2016년-2020년	184	15.8	52.7	73.4	15.2	12.5	9.8	0.0	5.4	9.2	0.5	5.4
	2020년 후	135	8.9	46.7	74.8	12.6	11.9	12.6	2.2	5.2	14.1	0.0	11.1
사업자	개인	270	15.9	45.2	67.0	18.5	11.1	11.1	1.5	5.9	14.8	0.4	8.5
	법인	354	17.2	48.6	79.7	9.9	11.0	10.2	0.8	3.1	9.9	0.6	9.0
업종	생산·가공	109	20.2	47.7	73.4	13.8	9.2	5.5	0.9	4.6	11.9	1.8	11.0
	집수리	135	18.5	36.3	74.1	16.3	11.1	17.0	1.5	2.2	17.0	0.7	5.2
	세탁·청소	121	17.4	52.9	71.9	11.6	8.3	13.2	1.7	3.3	11.6	0.0	8.3
	배송·운전	96	14.6	50.0	78.1	8.3	8.3	11.5	0.0	10.4	9.4	0.0	9.4
	음식점	68	7.4	50.0	77.9	16.2	19.1	5.9	0.0	4.4	13.2	0.0	5.9
	유통·판매	48	10.4	52.1	72.9	14.6	14.6	10.4	2.1	2.1	4.2	0.0	16.7
	사회서비스	32	31.3	46.9	68.8	9.4	15.6	0.0	0.0	3.1	12.5	0.0	12.5
	재활용·환경	8	0.0	50.0	100.0	37.5	0.0	0.0	12.5	0.0	0.0	0.0	0.0
	기타	7	28.6	42.9	42.9	28.6	14.3	14.3	0.0	0.0	14.3	0.0	14.3
소재지	서울	87	19.5	47.1	70.1	13.8	11.5	5.7	3.4	9.2	12.6	0.0	6.9
	부산	46	21.7	41.3	56.5	15.2	13.0	15.2	0.0	4.3	17.4	0.0	15.2
	대구	24	20.8	50.0	75.0	20.8	8.3	12.5	0.0	0.0	4.2	0.0	8.3
	인천	35	11.4	51.4	80.0	14.3	14.3	2.9	0.0	5.7	8.6	0.0	11.4
	광주	18	11.1	50.0	77.8	22.2	5.6	5.6	5.6	5.6	0.0	0.0	16.7
	대전	15	20.0	73.3	80.0	6.7	13.3	6.7	0.0	0.0	0.0	0.0	0.0
	울산	14	0.0	64.3	85.7	7.1	7.1	14.3	0.0	0.0	7.1	7.1	7.1
	경기	91	18.7	51.6	79.1	12.1	7.7	9.9	0.0	4.4	9.9	0.0	6.6
	강원	31	25.8	25.8	74.2	22.6	12.9	16.1	0.0	3.2	6.5	0.0	12.9
	충북	20	20.0	65.0	75.0	10.0	5.0	5.0	5.0	0.0	10.0	0.0	5.0
	충남(세종)	39	7.7	64.1	74.4	2.6	7.7	15.4	0.0	2.6	17.9	0.0	7.7
	전북	55	12.7	29.1	78.2	9.1	14.5	10.9	1.8	3.6	21.8	3.6	14.5
	전남	45	15.6	42.2	66.7	13.3	15.6	17.8	2.2	6.7	20.0	0.0	0.0
	경북	31	29.0	35.5	71.0	12.9	12.9	6.5	0.0	3.2	19.4	0.0	9.7
	경남	55	14.5	49.1	76.4	20.0	7.3	14.5	0.0	3.6	7.3	0.0	7.3
제주	18	0.0	50.0	88.9	16.7	22.2	5.6	0.0	0.0	0.0	0.0	16.7	

2) 자활기업의 경제적 성과

2021년 대비 2022년의 경제적 성과(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자산, 지출비용, 부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증가정도를 질문한 결과(매우감소-감소-유지-증가-매우증가)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자산 모두 유지(3점)보다 아래인 2.9점을 보였다. 반면 지출비용(3.4점)과 부채(3.0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변화가 2.8점으로 나타나 감소하였으며 법인사업자는 매출액 변화가 3.1점으로 나타나 개인사업자 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송·운전 업종에서 매출액이 3.2점으로 나타나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24〉 21년 대비 22년 경제적 성과 변화(5점)

(단위: 개, 점)

	구분	사례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지출비용	자산	부채
	전체	541	2.9	2.8	2.7	3.4	2.8	3.0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41	2.9	2.7	2.7	3.5	2.8	2.9
	3인-5인 미만	214	2.9	2.7	2.7	3.4	2.7	2.9
	5인-10인 미만	146	3.0	2.8	2.8	3.5	2.9	3.0
	10인-15인 미만	18	3.2	2.7	2.7	3.6	3.1	3.1
	15인-30인 미만	12	3.3	3.2	3.2	3.3	3.2	2.9
	30인 이상	10	3.2	2.2	2.9	3.0	2.6	3.2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3.0	2.8	2.8	3.5	2.9	3.1
	2010년-2015년	175	2.9	2.7	2.7	3.4	2.8	3.0
	2016년-2020년	184	2.9	2.7	2.8	3.4	2.7	2.8
	2020년 후	52	3.1	2.9	2.8	3.3	2.8	2.9
사업자	개인	227	2.8	2.6	2.6	3.4	2.6	3.0
	법인	314	3.1	2.8	2.8	3.5	2.9	3.0
업종	생산·가공	101	2.9	2.7	2.7	3.4	2.8	2.9
	집수리	125	2.9	2.8	2.7	3.4	2.9	3.2
	세탁·청소	107	2.9	2.8	2.8	3.4	2.7	2.8
	배송·운전	87	3.2	3.0	3.0	3.5	3.0	2.8
	음식점	44	2.7	2.7	2.5	3.5	2.5	2.8
	유통·판매	32	2.8	2.7	2.4	3.5	2.4	3.3
	사회서비스	31	3.1	2.7	2.7	3.7	3.1	3.1
	재활용·환경	8	2.3	2.1	2.4	3.1	2.5	3.1
	기타	6	3.2	2.8	3.0	3.5	2.5	2.3
소재지	서울	70	2.9	2.7	2.7	3.3	2.7	2.9
	부산	38	2.8	2.6	2.5	3.3	2.6	3.0
	대구	17	3.4	3.2	3.1	3.5	3.1	2.8
	인천	32	3.3	3.1	2.9	3.7	3.3	2.8
	광주	16	3.1	2.9	2.8	3.7	2.8	3.1
	대전	14	3.1	2.8	2.9	3.4	2.8	2.8

	구분	사례수	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지출비용	자산	부채
	울산	10	2.5	2.7	2.6	3.1	2.6	3.3
	경기	81	2.9	2.8	2.7	3.3	2.8	3.1
	강원	27	2.7	2.5	2.6	3.6	2.9	3.3
	충북	19	3.2	3.1	3.0	3.1	2.8	3.1
	충남(세종)	37	3.0	2.7	2.8	3.6	3.0	3.0
	전북	50	2.9	2.6	2.5	3.3	2.7	2.9
	전남	40	3.1	3.0	2.8	3.6	2.9	3.0
	경북	27	2.8	2.7	2.6	3.5	2.5	2.9
	경남	49	2.8	2.6	2.7	3.5	2.6	2.9
	제주	14	3.1	2.6	2.7	3.4	3.0	3.0

주 : 2022년 이전 창업한 자활기업만 응답

3) 자활기업의 사회적 성과

자활기업이 지역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사회적 성과를 질문하였다. 2021년 대비 2022년의 지역 내 사회적 성과를 조사한 결과 지역내 고용 창출 기여가 3.1점으로 유지를 기준으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내 빈곤을 감소 기여(3.0점),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 기여(3.0점), 공공성 있는 사업 비중(3.0점)의 증가는 1년사이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활동에 기여, 지역 소득 증가에 기여 등은 2.9점으로 유지보다는 감소의 추세로 나타났다. 감소의 추세가 있는 지역창업 기여와 지역 소득 기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법인사업자는 3.0점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2.7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중 사회서비스업(3.4점)은 지역사회 내 고용창출 기여가 증가추세로 나타나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를 보였다.

〈표 25〉 21년 대비 22년 사회적 성과 변화(5점)

(단위 : 개, 점)

	구분	사례수	지역창업	지역소득	지역고용	빈곤감소	공동체확산	공공성사업
기업 규모	전체	541	2.9	2.9	3.1	3.0	3.0	3.0
	1인-3인 미만	141	2.9	2.9	3.0	2.9	3.0	2.9
	3인-5인 미만	214	2.8	2.8	3.0	2.9	2.9	3.0
	5인-10인 미만	146	2.9	2.9	3.1	3.0	3.0	3.0
	10인-15인 미만	18	3.3	3.1	3.4	3.2	3.3	3.5
	15인-30인 미만	12	2.8	3.5	3.6	3.2	3.3	3.1
	30인 이상	10	2.8	3.1	3.3	3.3	3.1	3.1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2.9	3.0	3.2	3.0	3.1	3.1
	2010년-2015년	175	2.8	2.8	3.0	2.9	3.0	3.0
	2016년-2020년	184	2.8	2.8	3.0	2.9	2.9	2.9
	2020년 후	52	2.9	3.0	3.2	3.1	3.1	3.1

	구분	사례수	지역창업	지역소득	지역고용	빈곤감소	공동체확산	공공성사업
사업자	개인	227	2.7	2.7	2.9	2.9	2.9	2.9
	법인	314	3.0	3.0	3.2	3.0	3.1	3.1
업종	생산·가공	101	2.8	2.8	2.9	2.9	2.9	2.9
	집수리	125	3.0	3.0	3.1	3.0	3.0	3.2
	세탁·청소	107	2.8	2.9	2.9	2.9	2.9	2.9
	배송·운전	87	3.0	3.0	3.3	3.1	3.1	3.2
	음식점	44	2.8	2.9	2.9	2.8	2.9	2.9
	유통·판매	32	2.6	2.7	3.1	3.2	3.1	2.8
	사회서비스	31	2.8	3.1	3.4	3.1	3.2	3.1
	재활용·환경	8	2.5	2.5	2.9	2.6	3.0	2.6
	기타	6	3.2	3.0	3.0	3.0	3.2	3.2
소재지	서울	70	2.7	2.8	2.9	2.9	3.0	2.9
	부산	38	2.9	2.8	2.9	2.8	3.0	3.0
	대구	17	3.0	3.1	3.3	3.2	3.1	3.1
	인천	32	3.0	3.0	3.3	3.1	3.1	3.3
	광주	16	2.9	3.0	3.1	3.0	3.0	3.3
	대전	14	3.0	3.1	3.1	2.9	3.1	3.1
	울산	10	2.7	2.7	3.1	2.9	2.8	2.7
	경기	81	2.9	2.9	3.2	3.1	3.0	2.9
	강원	27	2.9	2.9	3.0	2.9	3.0	3.1
	충북	19	3.0	3.1	3.2	2.9	3.1	3.1
	충남(세종)	37	2.9	3.1	3.2	3.1	3.0	3.1
	전북	50	2.9	2.8	2.9	2.9	3.0	2.8
	전남	40	2.9	3.0	3.0	2.9	2.9	3.1
	경북	27	2.8	3.0	3.1	3.0	3.2	3.2
	경남	49	2.7	2.7	2.9	2.9	2.8	2.9
	제주	14	2.8	3.0	3.2	3.2	3.1	3.1

주 : 2022년 이전 창업한 자활기업만 응답

5. 자활기업 지원정책 만족도

1) 지원 정책 수혜 여부 및 도움 정도

자활기업이 최근 3년간 외부에서 지원받은 지원제도와 도움 정도를 질문하였다. 자활기업의 67.0%는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며, 교육(40.2%), 컨설팅(35.9%), 인프라지원(35.7%) 순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를 지원받은 것에 대한 도움정도는 4.6점(5점만점)으로 매우 도움이 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육, 컨설팅, 인

프라 지원에 대한 도움정도는 각각 4.0점, 4.0점, 4.5점으로 나타나 도움 정도에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소규모 기업의 경우 사업개발비에 지원경험(29.8%)이 높았으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인프라 지원(41.7%)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활기업의 인건비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최근 3년간 외부 지원 받은 경험(중복) 및 도움정도(5점)

(단위: 개, %, 점)

구분	사례수	인건비		사업 개발비		컨설팅		교육		공간		인프라		투자유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전체	594	67.0	4.6	29.1	4.5	35.9	4.0	40.2	4.0	20.0	4.3	35.7	4.5	11.6	4.4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57	60.5	4.7	26.8	4.4	31.8	4.0	41.4	3.9	17.8	4.3	33.8	4.5	8.9	4.1
	3인-5인 미만	238	70.6	4.7	29.8	4.6	36.1	4.1	42.0	4.1	20.2	4.1	31.1	4.3	12.2	4.3
	5인-10인 미만	159	68.6	4.5	28.3	4.5	39.0	4.0	38.4	3.9	22.0	4.7	46.5	4.6	10.7	4.3
	10인-15인 미만	18	61.1	5.0	38.9	4.9	38.9	4.3	27.8	4.2	11.1	4.5	22.2	4.8	16.7	4.7
	15인-30인 미만	12	58.3	4.6	16.7	5.0	33.3	4.0	25.0	4.7	33.3	4.0	41.7	4.6	16.7	4.5
	30인 이상	10	80.0	4.8	60.0	4.0	40.0	2.5	50.0	3.6	20.0	4.0	20.0	4.0	40.0	5.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51.5	4.7	23.8	4.5	30.8	4.1	29.2	4.3	10.8	4.1	37.7	4.5	10.8	4.4
	2010년-2015년	175	53.7	4.6	26.9	4.5	28.6	3.8	39.4	3.6	11.4	4.1	25.7	4.4	10.3	4.1
	2016년-2020년	184	81.0	4.6	28.8	4.5	38.0	3.9	41.8	3.8	23.9	4.2	35.9	4.4	9.8	4.1
	2020년 후	105	83.8	4.8	40.0	4.6	50.5	4.3	52.4	4.5	39.0	4.7	49.5	4.7	18.1	4.9
사업자	개인	254	62.2	4.6	22.0	4.3	29.1	3.9	44.5	3.9	20.5	4.1	31.5	4.4	10.6	4.0
	법인	340	70.6	4.7	34.4	4.6	40.9	4.1	37.1	4.0	19.7	4.5	38.8	4.5	12.4	4.6
업종	생산·가공	108	72.2	4.7	31.5	4.4	35.2	4.0	38.9	3.9	27.8	4.3	38.9	4.4	15.7	4.1
	집수리	131	53.4	4.5	23.7	4.5	34.4	3.8	33.6	3.9	6.1	4.5	26.7	4.6	11.5	4.4
	세탁·청소	114	70.2	4.6	35.1	4.5	38.6	4.2	43.9	4.2	23.7	4.3	47.4	4.5	7.9	4.1
	배송·운전	95	68.4	4.8	21.1	4.6	29.5	3.9	42.1	4.0	17.9	4.2	31.6	4.3	9.5	4.1
	음식점	57	75.4	4.6	35.1	4.6	56.1	4.1	45.6	3.9	29.8	4.5	47.4	4.5	12.3	4.7
	유통·판매	43	79.1	4.7	27.9	4.3	37.2	3.9	48.8	4.1	27.9	4.3	23.3	4.4	14.0	4.5
	사회서비스	32	59.4	4.9	34.4	4.7	28.1	4.1	28.1	3.6	21.9	4.3	28.1	4.6	18.8	5.0
	재활용·환경	8	62.5	4.2	37.5	4.3	12.5	5.0	37.5	3.7	12.5	3.0	25.0	5.0	0.0	.
	기타	6	66.7	5.0	33.3	5.0	0.0	.	66.7	3.8	0.0	.	50.0	4.3	0.0	.
소재지	서울	81	70.4	4.8	32.1	4.4	23.5	4.0	43.2	4.2	23.5	4.3	44.4	4.4	7.4	4.8
	부산	42	57.1	4.5	28.6	4.4	40.5	3.5	50.0	3.4	16.7	4.1	31.0	4.4	9.5	4.0
	대구	21	66.7	4.9	28.6	4.5	42.9	3.6	23.8	4.6	23.8	4.6	19.0	5.0	9.5	5.0
	인천	34	67.6	4.7	44.1	4.9	44.1	3.7	20.6	3.6	17.6	4.2	41.2	4.7	8.8	4.7
	광주	18	72.2	5.0	27.8	5.0	22.2	3.8	33.3	5.0	16.7	3.7	27.8	4.4	5.6	3.0
	대전	15	60.0	4.8	33.3	4.6	66.7	3.9	66.7	4.1	26.7	4.8	46.7	4.6	6.7	5.0

	구분	사례수	인건비		사업 개발비		컨설팅		교육		공간		인프라		투자용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	점
	울산	12	75.0	4.2	50.0	3.8	58.3	4.3	58.3	4.3	8.3	4.0	41.7	4.6	16.7	4.0
	경기	87	75.9	4.7	29.9	4.4	41.4	4.3	55.2	4.0	17.2	4.1	35.6	4.3	14.9	3.9
	강원	28	50.0	4.6	32.1	4.4	39.3	4.0	42.9	4.3	25.0	4.7	32.1	4.9	35.7	4.5
	충북	19	68.4	4.8	21.1	4.8	42.1	4.4	36.8	3.7	15.8	4.3	57.9	4.6	10.5	5.0
	충남(세종)	39	76.9	4.7	38.5	4.7	61.5	4.3	41.0	4.1	12.8	5.0	38.5	4.6	15.4	5.0
	전북	53	52.8	4.4	17.0	4.0	22.6	3.8	39.6	3.9	13.2	3.9	34.0	4.3	15.1	4.1
	전남	44	59.1	4.5	22.7	5.0	27.3	4.0	20.5	3.6	6.8	5.0	25.0	4.7	11.4	4.6
	경북	29	58.6	4.5	34.5	4.4	31.0	4.0	37.9	3.9	20.7	4.3	31.0	4.3	3.4	4.0
	경남	55	74.5	4.5	14.5	3.9	27.3	4.0	32.7	3.9	29.1	3.9	29.1	4.2	7.3	3.5
	제주	17	82.4	4.8	41.2	4.9	29.4	4.0	35.3	4.0	70.6	4.8	47.1	5.0	5.9	5.0

주 : 2023년 창업한 자활기업은 제외

2) 운영과정에서 어려운 점

자활기업을 운영하며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력확보가 76.9점으로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으며, 자금조달 73.6점, 경영방법 66.8점, 판로 63.9점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판매 업종은 자금조달(79.7점)을 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업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정책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표 27〉 운영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100점 기준)

(단위: 개, 점)

	구분	사례수	자금조달	기술향상	인력확보	사업장 위치	판로	행정절차	경영방법	기타
	전체	624	73.6	58.2	76.9	59.1	63.9	61.2	66.8	89.7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73.2	57.2	76.7	58.5	64.5	62.2	67.5	75.0
	3인-5인 미만	256	75.9	57.0	76.4	60.1	63.1	61.9	67.3	90.0
	5인-10인 미만	163	71.3	59.5	77.5	58.1	64.3	59.4	65.0	91.7
	10인-15인 미만	18	66.7	62.5	76.4	51.4	69.4	62.5	66.7	100.0
	15인-30인 미만	13	69.2	63.5	80.8	59.6	63.5	51.9	69.2	-
	30인 이상	10	75.0	70.0	80.0	75.0	62.5	67.5	70.0	75.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71.4	58.5	78.5	56.0	65.6	62.1	67.9	85.0
	2010년-2015년	175	76.3	58.1	76.9	58.4	65.3	63.3	66.3	96.4
	2016년-2020년	184	74.2	60.3	77.9	59.8	64.0	60.3	66.4	85.0
	2020년 후	135	71.3	55.2	74.1	62.2	60.6	58.9	67.0	-
사업자	개인	270	74.4	56.1	75.8	58.8	61.9	61.3	65.0	85.0
	법인	354	72.9	59.8	77.7	59.4	65.5	61.2	68.2	91.7

	구분	사례수	자금조달	기술향상	인력확보	사업장 위치	판로	행정절차	경영방법	기타
업종	생산·가공	109	74.3	59.2	78.2	59.6	63.5	61.0	64.2	95.0
	집수리	135	76.5	61.7	79.3	54.3	62.8	60.4	67.2	89.3
	세탁·청소	121	71.9	57.0	75.0	57.4	70.9	62.4	70.0	-
	배송·운전	96	68.5	58.9	79.4	59.1	59.6	58.9	64.3	83.3
	음식점	68	71.7	52.9	72.1	63.2	63.2	62.1	68.8	-
	유통·판매	48	79.7	53.1	76.0	63.5	57.3	60.4	60.4	-
	사회서비스	32	66.4	63.3	76.6	65.6	66.4	62.5	73.4	87.5
	재활용·환경	8	90.6	50.0	68.8	65.6	75.0	75.0	68.8	-
	기타	7	92.9	60.7	71.4	67.9	60.7	67.9	71.4	-
소재지	서울	87	73.9	54.0	74.7	62.9	65.5	59.5	67.5	-
	부산	46	76.6	53.8	71.7	57.6	57.1	59.2	65.8	-
	대구	24	75.0	66.7	74.0	62.5	69.8	69.8	75.0	-
	인천	35	73.6	64.3	77.9	53.6	64.3	55.0	64.3	83.3
	광주	18	68.1	50.0	76.4	58.3	58.3	56.9	56.9	-
	대전	15	75.0	51.7	76.7	60.0	70.0	66.7	73.3	-
	울산	14	76.8	60.7	76.8	57.1	80.4	66.1	73.2	-
	경기	91	75.8	57.7	78.6	59.1	66.2	64.8	67.3	87.5
	강원	31	77.4	56.5	72.6	63.7	64.5	63.7	62.9	-
	충북	20	65.0	53.8	70.0	50.0	63.8	47.5	60.0	75.0
	충남(세종)	39	75.6	58.3	82.1	59.6	64.7	60.9	67.3	100.0
	전북	55	73.2	59.6	80.0	59.1	61.8	60.9	65.5	100.0
	전남	45	72.8	63.3	80.6	56.7	60.0	59.4	71.7	91.7
	경북	31	71.0	55.7	83.1	64.5	59.7	63.7	64.5	-
	경남	55	69.1	62.7	75.5	57.7	63.6	63.2	69.6	91.7
제주	18	72.2	62.5	73.6	55.6	63.9	59.7	58.3	-	

3)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지원 정책

자활기업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원정책은 인건비 지원(85.3%)이 1순위로 나타났으며, 인프라지원(56.1%), 사업개발비(50.5%), 공간/임대 지원(46.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가 5-10인 규모인 경우 인프라 지원(61.3%)을 희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인증받은 기업인 경우 컨설팅지원(21.5%)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판매 업종은 모든 기업이 인건비 지원(100%)을 희망하였으며, 집수리 업종은 투자·용자 지원(42.2%)을 희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8〉 우선지원 정책(1+2+3순위)

(단위 : 개, %)

	구분	사례수	인건비	사업 개발비	컨설팅	교육	공간	인프라	투자 용자	기타
	전체	624	85.3	50.5	14.9	15.2	46.8	56.1	28.7	2.6
기업 규모	1인-3인 미만	164	89.0	54.3	11.6	13.4	47.0	55.5	28.0	1.2
	3인-5인 미만	256	86.3	50.8	15.2	17.2	45.3	52.7	28.9	3.5
	5인-10인 미만	163	81.0	43.6	18.4	17.2	47.9	61.3	29.4	1.2
	10인-15인 미만	18	83.3	72.2	5.6	5.6	44.4	61.1	22.2	5.6
	15인-30인 미만	13	92.3	38.5	30.8	-	46.2	69.2	15.4	7.7
	30인 이상	10	60.0	70.0	-	-	70.0	40.0	50.0	10.0
인증 시기	2010년 전	130	79.2	46.2	12.3	11.5	48.5	63.8	36.9	1.5
	2010년-2015년	175	83.4	50.3	10.9	18.9	46.9	56.6	29.7	3.4
	2016년-2020년	184	90.8	53.3	15.8	14.7	47.3	52.2	22.8	3.3
	2020년 후	135	85.9	51.1	21.5	14.8	44.4	53.3	27.4	1.5
사업자	개인	270	84.8	48.9	18.5	16.3	47.8	50.7	30.0	3.0
	법인	354	85.6	51.7	12.1	14.4	46.0	60.2	27.7	2.3
업종	생산·가공	109	80.7	49.5	14.7	10.1	50.5	61.5	33.0	-
	집수리	135	84.4	37.8	7.4	17.8	45.9	63.0	42.2	1.5
	세탁·청소	121	85.1	57.0	19.8	19.8	39.7	59.5	15.7	3.3
	배송·운전	96	84.4	47.9	15.6	15.6	50.0	62.5	19.8	4.2
	음식점	68	88.2	60.3	19.1	7.4	45.6	57.4	20.6	1.5
	유통·판매	48	100.0	50.0	18.8	18.8	41.7	27.1	35.4	8.3
	사회서비스	32	81.3	59.4	15.6	18.8	59.4	28.1	34.4	3.1
	재활용·환경	8	87.5	75.0	12.5	-	62.5	12.5	50.0	-
	기타	7	71.4	71.4	-	14.3	57.1	57.1	28.6	-
소재지	서울	87	93.1	57.5	13.8	16.1	54.0	39.1	23.0	3.4
	부산	46	84.8	58.7	17.4	17.4	39.1	45.7	30.4	6.5
	대구	24	95.8	58.3	16.7	4.2	41.7	50.0	33.3	-
	인천	35	77.1	45.7	20.0	17.1	42.9	68.6	17.1	11.4
	광주	18	83.3	44.4	16.7	5.6	44.4	72.2	33.3	-
	대전	15	73.3	40.0	6.7	13.3	60.0	73.3	33.3	-
	울산	14	85.7	64.3	7.1	7.1	57.1	50.0	28.6	-
	경기	91	87.9	56.0	12.1	17.6	45.1	49.5	30.8	1.1
	강원	31	87.1	51.6	9.7	6.5	51.6	67.7	25.8	-
	충북	20	75.0	50.0	30.0	20.0	45.0	50.0	30.0	-
	충남(세종)	39	84.6	41.0	10.3	15.4	38.5	56.4	51.3	2.6
	전북	55	80.0	41.8	12.7	10.9	56.4	67.3	30.9	-
	전남	45	84.4	53.3	22.2	17.8	35.6	57.8	22.2	6.7
	경북	31	74.2	61.3	19.4	19.4	38.7	58.1	29.0	-
	경남	55	87.3	34.5	14.5	20.0	49.1	70.9	21.8	1.8
제주	18	88.9	38.9	11.1	16.7	55.6	55.6	33.3	-	

IV. 결론

이번 자활기업 실태조사는 전국에 설립되어 있는 자활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실태조사로 그 의의가 있다. 응답한 기업은 10인 미만의 작은 규모(93.4%)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이전에 초기 인증받은 자활기업이 20.8% 되며, 약 30%의 기업이 2016년~2020년 사이에 인증받은 기업이다.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56.7%)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집수리(21.6%), 세탁·청소(19.4%), 배송·운전(15.%) 등 대표 자활사업단의 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활기업은 취약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가치를 잘 이어가고 있다. 실제 구성원의 응답기업의 30%는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가치를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3.5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 역시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와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이라 응답하였다.

자활기업은 향후 1년 후에도 계속 유지하며 기업을 운영할 것이지만, 몇 가지 영역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자활기업의 사업장이 임차형태(91.8%)였으며, 그 중 약 70%가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평균 월 88만원의 월세는 5인 미만의 영세 자활기업에게 큰 부담감으로 느껴진다. 또한 홍보가 가능한 구성원이 없어서 홍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49.2%) 소비자(B2C)에게 판매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비중이 높음(43.9%)에도 홍보아 판로를 다양하게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활기업에게 지원한 다양한 제도 중에 인건비 지원사업이 이용경험(67.0%)이 많고, 도움정도(만족도 4.6점/5점)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울 때 정부정책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며(28.0%) 운영자금(83.4%)으로 사용하였으며, 약 1억 5천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 중에 행정 서류를 제출(16.3%)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자신의 기업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12.7%)도 어렵게 느껴졌다.

따라서 자활 기업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인력확보의 어려움(76.9점/100점), 자금조달(73.6점/100점), 경영방법(66.8점/100점)의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업종별, 기업규모별, 성숙도별 필요 정책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정교한 지원제도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자활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자활 기업에서 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초기 자활기업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그 기업을 성장시키는 큰 동력이 되었다. 홍보, 회계, 노무 등 전문인력과 사업종류별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업종에 따라 사업개발비 지원이 필요하다. 신규 자활사업단에서 성장한 자활기업의 경우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큰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지역공산품, 농산물 등을 가공하는 업종의 경우 개발비 등이 필요한데, 이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아이템을 구축하기 어려워 사업을 지속할수 없게 된다. 셋째 자활기업 인프라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활기업의 경우 청소, 세탁, 배송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비와 시설이 노후화 되면 경쟁력이 없어진다.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는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여 편리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자활기업을 운영하는데 근간이되는 기관의 미션을 공유하고 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교육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 내 다양한 조직의 협력으로 연계정도를 강화하여 성장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